

RR 2014-01-4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IV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례 연구 보고서

연구책임자 변기용(고려대학교)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IV

한동대학교 사례 연구 보고서

연구책임자	변기용(고려대학교)
전임연구원	전재은(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김병찬(경희대학교)
	배상훈(성균관대학교)
	이석열(남서울대학교)
	변수연(건국대학교)
특별공동연구원	이미라
연구보조원	최지혜(고려대학교)
	김어진(고려대학교)
	김수홍(성균관대학교)
	홍지인(성균관대학교)
	조민지(경희대학교)
연구협력관	김혜림(교육부)

이 연구는 교육부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드립니다.

머 리 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지식강국을 구현하고 국가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제도와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06년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를 정책중점연구소로 지정하여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2013/14년은 지정 8년차(3단계 2차년도)가 되는 해입니다. 3단계 2차년도에 연구소가 수행한 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단계 2차년도 (2013.10.16 ~ 2014.10.15) 수행 연구과제 목록

구분	제목	과제번호
기본과제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I	RR2014-01
기본과제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건전성 추세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RR2014-02
수시과제	바람직한 학사운영을 위한 방안 연구	RR2014-03
수시과제	강사제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RR2014-04
수시과제	국내외 의과대학 교육 특성 및 교육과정 분석 연구	RR2014-05
수시과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모델 개발	RR2014-06
수시과제	대학원 종류, 특성별 학사, 학위 관리 우수모델 분석	RR2014-07
수시과제	국립대학 재정·회계기준 및 재정·회계 규정 개발	RR2014-08
수시과제	UNESCO ERI-Net 2014 국제 공동 연구 (대학교원승진)	RR2014-09
이슈페이퍼	학교법인운영권양도양수 대응방안 연구	IP2014-01

올해에도 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부, 연구재단 및 대학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들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2015년 2월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서기용]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방 소재 대학이지만 ‘취업’에 강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신흥 명문대학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한기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기대는 취업률이 5년 평균 82.3%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한기대가 어떤 점을 잘하는지,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서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직교수, 학과장, 일반교수, 학생, 직원 등 학교의 주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중심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두 차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시설과 여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찰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취업’을 대학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대학으로서 대학 발전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기대 학부교육 우수성 측면은 크게 학업적 도전, 지적활동, 능동적-협동적 학습, 교우관계, 교수와 교류, 지원적 대학 환경 등 여섯 영역에서 그 특징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성공 요인 및 맥락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지방대학 및 한국적 상황에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부 교육의 특징

우선, 한기대는 많은 수업시간을 전제로 학업적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기대는 졸업학점이 150학점으로 ‘많은 학습량’이 요구되며, 이론과 실습의 비율이 50:50인 ‘실험실습중심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수업시수는 다른 대학보다 훨씬 높다. 또한 ‘질 높은 졸업관리’를 위해서 졸업 작품, 토익 600점 이상, 산업기사이상 자격 취득 등이 요구하고 있다. 한기대는 실천공학자이외에 인적자원개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HRD 관련 학점을 16학점을 모든 학생이 수강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한기대는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밀착된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적 활동을 자극하고 있다. 한기대 교육의 특징 중 하나가 3학년부터 대학원 체제처럼 지도교수의 Lab에 소속되는 ‘Lab 중심의 전공 교육’이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3학년과 4학년이 대상이 되며, 최대 10개월까지 현장실습이 가능한 ‘IPP제도’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학생들 중에서 수학, 물리, 컴퓨터 등 기초과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보충교육을 위해서 MSC교육센터의 ‘기초능력 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학도들에게 부족한 ‘인문학 소양 강화’를 위한 휴먼아카데미 등이 학교 정책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한기대는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능동적·협동적 학습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기대는 수업 운영방식인 프로젝트 중심의 ‘팀별 과제 수행과 토론식 수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Lab실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팀별 졸업작품 준비 및 발표’도 팀원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예를 들어 실업계고 출신 학생과 인문계 출신 학생들 간의 상호 도와주는 ‘학생 협력학습 및 자극’은 서로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

넷째, 한기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교우관계가 확장되고 있다. 한기대의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친밀감이 학사경고자나 부족한 학생들을 서로 도와주는 문화인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주고 있다.

다섯째, 교수와 학생 교류 영역에서는 3, 4학년들은 Lab 중심의 전공 교육으로 ‘함께 하는 지도교수’와의 유대감 형성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전공 교육 활동이 가능하고 졸업 후에도 Lab 중심으로 모임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한기대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으로 생각할 만큼 지원적 대학환경을 갖고 있다. 한기대는 사립대이지만 실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출연하여 설립된 대학이므로 등록금, 장학금 제도, 생활관(기숙사), 학교

급식 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학생의 학습능력과 기초과학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창조인재단의 학습법을 위한 POBU 프로그램과 MSC교육센터에서 기초과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직원들의 ‘학생들을 위한 책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부교육의 성공요인

한기대의 학부교육의 성공 요인은 크게 ‘취업’에 강한 대학 이미지 메이킹, 지속적인 위기관리, 교수들의 헌신과 열정, 현장중심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공동체 문화, 성과중심의 문화 등의 여섯 측면을 들 수 있다. 첫째, 성공적인 대학 이미지 메이킹은 ‘취업’이다. 한기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한기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취업’이라고 할 만큼 한기대의 이미지를 취업이 강한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한기대는 취업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질도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공적합도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속적인 위기관리이다. 한기대는 사립대학이지만 예산의 80%를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고용노동부의 정책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줄타기’의 태생적인 딜레마가 있다. 한기대는 외부 환경 영향과 정권 교체 때마다 대학의 존립에 대한 타당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위기적 상황 때문에 한기대는 항상 긴장감이 있고, 일을 만들고, 변화를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 문화가 있다.

셋째, 교수들의 헌신과 열정이다. 한기대는 교수진 구성자체가 현장중심, 실무중심적이다. 모든 교수가 현장경험을 3-4년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임용시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교수들은 현장학기제를 통해서 3년에 1번씩 6개월 동안 산업체를 방문해서 현장경험을 갖는다. 또한 한기대의 교수들의 학생지도 특징 중에 하나인 지도교수 중심의 Lab실 운영과 IPP 나가기 전에 전공 계열 학기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많은 학습을 기꺼이 지도한다. 이런 모습들을 서로 보고 배우면서 끈끈한 동료문화도 형성하고 있다.

넷째, 현장중심 교육과정이다. 한기대의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특징 적인 것이 전공교육의 출발과 종결은 Lab실 중심의 전공교육이라는 점과, 현장실습을 강조하는 IPP제도를 통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IPP 제도로 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은 월 140만원을 받게 되지만 현장 실습이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다섯째, 학생의 학습공동체 문화이다. 한기대 학생들은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하는 속에서 ‘우리’라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문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들 간에 서로 상호협력 하는 분위기나 학사경고 등 약간 부족한 학생들도 선후배 또는 친구들 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소규모 대학이라는 점도 있고, 학생들이 졸업과 더불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한 방향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섯째, 성과중심의 문화이다. 한기대는 정부에서 예산의 80%를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이지만 반대로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대학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과를 보여주어서 한기대가 우수한 대학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3.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한기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또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하는 바가 서로 상충할 때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데,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위기의식이 대학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지속적인 대학발전을 유도하게 되었다.

한기대는 졸업학점이 150학점으로 학습량이 매우 많으며, 대학원체제와 같은 Lab실 중심의 전공교육과 일과 학습이 연계된 현장연계의 IPP 제도가 가장 인상적인데, 학생들은 3, 4학년 때 이 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성 및 역량 개발과 진로 탐색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한기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밀착지도를 하고 있다. 학생들도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학습공동체를 유도하고,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한기대가 추구하는 인상 깊었던 단어는 “학습 협력과 팀워크” 이었다.

한기대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교육적 성과’를 지향하는 점이다. 학생들의 실력을 최대한 높여서 졸업할 때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학할 때 수능 2등급 수준의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노동시장에서 수능 1등급 수준 대학의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기대는 학생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고 학생들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그 지향점으로 지속적으로 취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교육내용도 취업에 유리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한기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물리적인 교육 환경이나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구비하고, 24시간 실습실을 개방하면서 학교교육이나 학생들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등록금과 많은 장학금 제도 그리고 기숙사 시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밝혀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기대의 학부교육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기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한기대는 학부 교육을 강조하였고, 대부분의 교수들도 현장중심 교육에 몰입을 하고 있어 지금과 같이 취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둘째, 학생지도에 있어 1,2학년과 3,4학년 학생의 지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의 인재상에 대한 해결책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이다. 이는 학생들의 높아지는 눈높이와 대학의 정체성간의 일치와도 연결된다. 넷째, 한기대의 컨트롤 타워의 정립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기대는 취업이 강한 성공한 모델로 우리나라 학부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차 례

I. 서론	1
II.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기본적 특성	
1. 역사적 맥락 : “신홍 명문대학으로”	5
가. 기관의 역사	5
나.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모집 현황	7
2. 미션과 교육철학 : “KoreaTech을 지향하며”.....	7
가. 공학계열 및 HRD 특성화 대학	7
나. 실천공학기술자 및 HRD전문가 양성하는 대학	8
다. 실무형 창의형 인재 육성	9
라. KoreaTech의 특성화 교육 모델	9
마. 교육과정 구성 : ‘ π -plus형 교육 시스템’	10
3. 구성원	11
가. 교원	11
나. 학생	12
다. 직원	12
4. 물리적 환경 : “우수한 캠퍼스”	12
가. 외곽지역에 있는 캠퍼스	12
나. 캠퍼스 시설과 분위기	13
5. 행정부서와 대학 지배구조	13
가. 행정부서	13
나. 대학 지배구조.....	15
6. 커리큘럼 등 기타 특징	16

가. 일학습병행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16
나. 취업 생들의 높은 전공일치도	16
다. ‘휴먼아카데미’ 특강	17
라. P&S Open Chair	17

III.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부교육의 특징

1. 학업적 도전: “실력은 파고드는 자의 몫”	21
가. 많은 학습량을 유도하는 학사운영: “졸업학점이 150학점이라니”	22
나. 현장에 다가서는 전공 교육 “실력의 척도는 현장 적응력”	24
다. 졸업인증제로 성취수준을 명확히 하기	24
라. 대학의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 HRD 교육	28
2. 지적활동: ‘전방위 학습 무대’	29
가. 팀웍으로 하는 교육: Lab 중심의 전공 교육	30
나. 현장과 연계된 학습(일학습병행제, IPP)	31
다. 부족한 학생들 함께 데려가기	35
라. 사고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 강조: 휴먼아카데미	38
3. 능동적·협동적 학습: “팀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39
가. 팀별 학습활동 및 토론식 수업 강조	40
나. 팀으로 졸업작품 준비 및 발표	43
다. 학생의 협력학습 및 자극	44
4. 교우관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45
가.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의식 교류	46
나. 서로 도와주는 문화	47
5. 교수-학생 관계: “중요성과 현실의 조화”	48
가. Lab 중심의 전공 교육으로 지도교수와의 유대 형성	48
나. 온도 차이가 있는 1,2학년 지도교수제	50
6. 지원적 대학환경: “학생중심의 책임지는 지원”	52

가. 다양한 학생복지 환경 조성	52
나. 학생의 학습능력과 기초과학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53
다. 학생을 위한 책임 서비스	54
라. 밀착된 학생 관리: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55

IV.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부교육의 성공요인

1. 성공적인 대학 이미지 메이킹 : ‘취업’	57
가. 졸업하면 취업은 된다: "한기대는 공고생들의 서울대다."	57
나. 취업의 질이 높은 대학: 높은 전공적합도	59
2. 한기대의 비밀 : ‘지속적인 위기의식’	59
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줄타기’의 태생적인 어려움	59
나. 대학의 정체성 변화: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대학	60
다. 변화지향의 문화: 변화를 통한 생존	61
3. 교수들의 ‘헌신과 열정’	62
가. 교수들의 현장 전문성 강조: 현장경험 활용	62
나. 밀착된 학습 지도	63
다. 끈끈한 동료문화(모델링)	64
4.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64
가. 전공교육의 출발과 종결은 Lab 실 중심의 교육	64
나. 현장실습을 강조하는 제도(IPP제도): “일과 학습의 병행”	65
다. 아르바이트도 산학협력으로	66
라. 산학연계 강의 운영	67
5. 학생의 ‘학습공동체 문화’	67
가. 학생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67
나. 기초학력부터 책임지도	68
다. 학생들의 적성을 살리는 현장 교육	69
6. ‘성과 중심’의 문화	70

가. 정부시책을 반영한 사업 수행	70
나. 성과중심: ‘보여주기’ 위한 노력	70
다.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갈증	7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73
2. 제언	77

참고문헌	80
------------	----

부록	81
----------	----

1. K-DEEP 프로젝트 개요	81
2. 미국 Indiana 대학 NSSE Institute의 DEEP 프로젝트 개요.....	87
3. 미국의 NSSE 및 대교협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 개요.....	88
4. K-DEEP 프로젝트 참여연구진 프로필.....	97

표 차 례

<표 I-1> 자료 수집 일정 및 내용	2
<표 I-2> 수집된 문서자료	3
<표 II-1> 최근 3년 간 한국기술대학교 신입생 모집 현황	7
<표 II-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교원 현황	11
<표 II-3>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교직원 구성 현황	12
<표 III-1> ACE대학 및 전체 참여대학과의 평균비교	21
<표 III-2> K-NSSE 자료: 학업적 도전 영역	21
<표 III-3> K-NSSE 자료: 지적 활동 영역	29
<표 III-4> K-NSSE 자료: 능동적·협동적 활동 영역	40
<표 III-5> K-NSSE 자료: 교우관계 영역	46
<표 III-6> K-NSSE 자료: 교수와의 교류 영역	48
<표 III-7> K-NSSE 자료: 지원적 대학 환경 영역	52

그 립 차 례

[그림 II-1] VISION 2020 체계도	8
[그림 II-2] 한기대 인재상	9
[그림 II-3] 한기대 학부교육 특성화 모델	9
[그림 II-4] π -plus형 교육 시스템	10
[그림 II-5] 한기대 행정조직도	14
[그림 II-6] 한기대 창조인재교육개발단 조직도	15
[그림 V-1] 한기대의 우수대학으로서 성공 모형	77

I. 서 론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 하에 1991년 개교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설립·지원하는 국책대학이자 공학계열 및 HRD(인적자원개발)분야 특성화 대학이다. 현재 한기대는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건축공학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디자인공학과 등의 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인 산업경영학부 등 6학부 2학과에 4,200명의 학부생이 재학하고 있다.

한기대는 우리나라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 학부교육을 잘 시키는 대학, 공학교육을 대표하는 롤 모델, 기업체에서 평가한 가장 우수한 대학, 학생이 가장 행복한 대학 등 많은 수식어가 따른다. 대학의 취업률은 매년 최상위권을 달려왔다. 2010년 81.1%로 전국 4년제 대학 1위, 2011년 79.6%(2위), 2012년 82.9%(1위), 2013년 81.8%(2위)이다. 2014년의 취업률은 85.9%이며, 그 동안 5년 평균을 보면 82.3%로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하다. 2014년 한기대 취업자의 59.3%는 대기업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대기업 48.2%, 공기업 및 공공기관 11.1%)하는 등 질적인 성과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특히 삼성그룹(계열사 포함) 취업자는 102명 규모이다.

한기대가 학부교육을 정말 잘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데, 이 연구는 한기대가 어떤 점을 잘하는지,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기대 학부교육의 우수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 학부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구성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학부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그 우수성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수함의 기반과 맥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는 대체로 평가를 통한 양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한기대의 우수성의 심층적인 맥락까지 드러내 주고 있지는 못했다. 한기대의 우수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발전 모델로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양적 분석과 아울러 질적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서 한기대 학부교육 우수성의 특징과 맥락을 밝히고자 하는 질적 사례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사례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분석 및 면담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사례대학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연구자들은 총 2차례에 걸쳐 한기대를 방문하였다. 면담자 수는 교수 13명, 학생 21명, 교직원 4명 등 총 48명이다(<표 I-1> 참조).

<표 I -1> 자료 수집 일정 및 내용

구분		사전 면담	1차 방문	2차 방문
일시		2014.08.18(1일)	2014.10.7~8(1박2일)	2014.12.9(1일)
장소		건양대학교 (합동워크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면담	교수	1명	교무처장 포함 총 6명 (개별면담)	교무처장 포함 총 7명 (개별면담)
	학생	-	총 15명 그룹면담(2그룹)	총 6명 (개별면담)
	교직원	1명	총 2명 (개별 면담)	총 2명 (그룹면담)
참여관찰		-	-	창조인재교육개발단 방문
문서자료		ACE사업보고서 등 3건	학교발전계획 등 6건	휴먼아카데미 강연집 등 2건

문헌자료의 경우, 한기대 발전계획서, 자체평가보고서, 휴먼아카데미 강연자료집, 한기대 신문(KOREA TECH PRESS) 등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문건뿐만 아니라, ACE 사업계획서, 특성화 사업계획서, 학부교육 실태 진단보고서 등 한기대에서 작성 혹은 발간한 다양한 자료를 대학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서 함께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문서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I -2> 수집된 문서자료

연번	자료 내용
1	ACE사업계획서(한국기술교육대)
2	자체평가연구보고서(한국기술교육대)
3	Korea TECH 한국기술교육대 자료집
4	KOREATECH 장기현장실습 IPP 자료집
5	2014 취업진로 가이드
6	코리아텍 Vision 2020
7	학부교육 실태진단 보고서(한국기술교육대학)
8	졸업 작품집
9	대학알리미 사이트(한국기술교육대)
10	휴먼아카데미 강연 자료집

사전 회의 및 두 차례의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모두 모아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한기대 학부교육의 특성 및 우수성과 관련된 주제들을 6개 영역별로 분류 및 코딩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분석별로 도출된 주제들을 범주화시켜서 해당 영역의 핵심 주제어들을 명명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실시하여 1차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해석의 작업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1차보고서 완성 후에 내부자 검토를 위하여 한기대 담당자들에게 세 차례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분석 결과, 구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한기대의 기본적 특성과 관련하여 역사적 맥락, 교육철학과 목표, 구성원 특성, 학교시설 및 환경, 행정부서 구조, 교육과정 등이 유목화 및 정리되었다. 그리고 한기대 학부교육 우수성의 특성 및 맥락과 관련해서는 여섯 영역으로 분석되었는데, 학업적 도전, 지적 활동, 능동적·협동적 활동, 교우관계, 교수-학생 교류, 지원적 대학환경 등을 바탕으로 그 특성과 우수성이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기대에서 우수한 학부교육을 가능하게 했던 성공 요인들은 ‘취업’이 강한 대학 이미지 메이킹, 지속적인 위기관리, 교수들의 헌신과 열정, 현장중심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공동체 문화, 성과중심의 문화 등의 측면에서 도출되었다.

한기대는 지방의 사립대학이면서 사립보다는 국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소규모 대학으로서 독특한 대학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대학의 발전만이 대학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취업’을 대학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대학으로서 대학 발전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대학의 성공 요인 및 맥락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지방대학 및 한국적 상황에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게 시사점을 줄 것이다.

II. 사례 대학의 기본적 특성

1. 역사적 맥락 : “신홍 명문대학으로”

가. 기관의 역사

한기대는 1982년 12월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의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 폐지 후 노동부의 직업훈련교사양성전담기관 재설립계획에 따라 그 태동이 시작되었다. 1991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산업기계공학과 등 8학과 입학정원 240명 규모의 한국산업기술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 1992년 3월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 대지 71,640평, 건물 13,477평의 규모로 개교하였다.

정부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을 설립한 기본 취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및 직업능력개발 담당자의 양성과 재교육 그리고 실천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 1995년 9월 교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변경하였고 1996년 9월에는 산학협동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1997년 3월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기계공학과 및 전기·전자공학과를 신설하고 5월에는 대강당을 준공하였으며 9월에는 다산정보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산업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계금형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등 5개 학과를 신설하였다. 1998년 9월 노동부의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재교육, 향상교육, 신기술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대학부설능력개발교육원을 개원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999년에 특성화 목표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특성화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1년 10월 대학발전계획서에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의 National Center를 특성화 기술교육 추진 전략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2002년 3월 한기대 VISION 2005에서는 능력개발교육 메카인 특성화 대학교를 지향하며, 대학 특성화 및 21C형 인적자원개발 교육체계 운영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특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9년 정밀공작기계연구소 및 어학교육센터, 중소기업청지정 창업보육센터 등을 설치하고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을 위한 산업경영학부 기술경영인력경영전공을 추가 신설하였다. 또한 2000년 3월에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부과정을 13개 학과 1개 학부 교양학과에서 4개 학부 5개 학과 교양학부로 학제를 개편하였다.

2001년에는 산업기술의 소프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전공, E-Business전공을 신설하였으며, 2002년도에 인터넷S/W 전공을 신설하였다. 2003년도에는 IT분야 전문인력양성 확충을 위하여 정보보호공학전공을 신설하고 정보기술공학부에서 인터넷미디어공학부를 분리·신설하였다. 대학원은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석사과정(30명 정원)과 산업대학원 석사과정(30명 정원)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5개 학부 14전공, 5개 공학과의 학부과정과 3개 대학원 석사과정 10개 학과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4년에는 기계계열의 학제를 기존 2학부 4개 전공 1학과에서 2학부 6개 전공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건축분야의 국제화·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공학과를 건축공학부로 개편하여 학부 내에 건축공학전공 및 건축학전공을 5년제로 두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분야의 교육훈련정책 및 교수법연구개발(R&D)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하였다.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천안 도심권에 제2캠퍼스를 설치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산업계의 기술교육수요를 반영한 계약학과 형태인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공학과를 개설하였다. 또한 특성화 대학을 선도하기 위해서 한기대 발전계획 (VISION 2010)을 수립·추진하였다.

이제 대학구조개혁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대학의 특성적 역할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연구 및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학의 새로운 중장기발전전략인 ‘코리아텍 VISION 2020’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텍 Vision 2020’은 1단계 기반 조성기, 2단계 도약기, 3단계 성과 창출기를 설정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실천공학과 인적자원개발의 창조적 융합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교육의 모델 대학일 뿐 아니라 직업능

력개발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HRD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

나.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모집 현황

등록금은 공학계열이 학기당 261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전체 재학생의 70%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비용도 3인실 기준 32만원(학기당)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은 2011년 22.6%, 2012년 19.6%, 2013년 17.5%로 점차 낮아져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3년도 기준 59.0%인데 이는 정부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과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 담당자 양성사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은 한국산업 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하고 있다.

<표Ⅱ-1> 최근 3년 간 한국기술대학교 신입생 모집 현황

연도	입학 정원	모집인원			지원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경 쟁 율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계	정원내	정원외		
2012	900	951	903	48	9,714	9,392	322	950	903	47	100	10.4
2013	900	959	900	59	7,764	7,431	333	947	900	47	100	8.3
2014	900	956	900	56	10,356	10,139	217	944	900	44	100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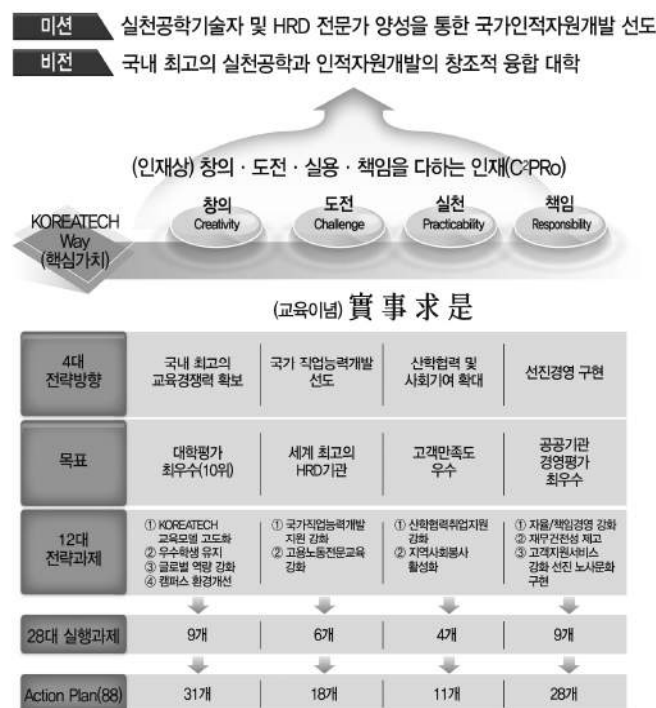
2. 미션과 교육철학 : “KoreaTech을 지향하며”

가. 공학계열 및 HRD 특성화 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은 ‘KOREATECH’이라는 이름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이는 ‘korea와 공과대학의 university of technology’의 합성어로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지향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 실천공학기술자 및 HRD전문가 양성하는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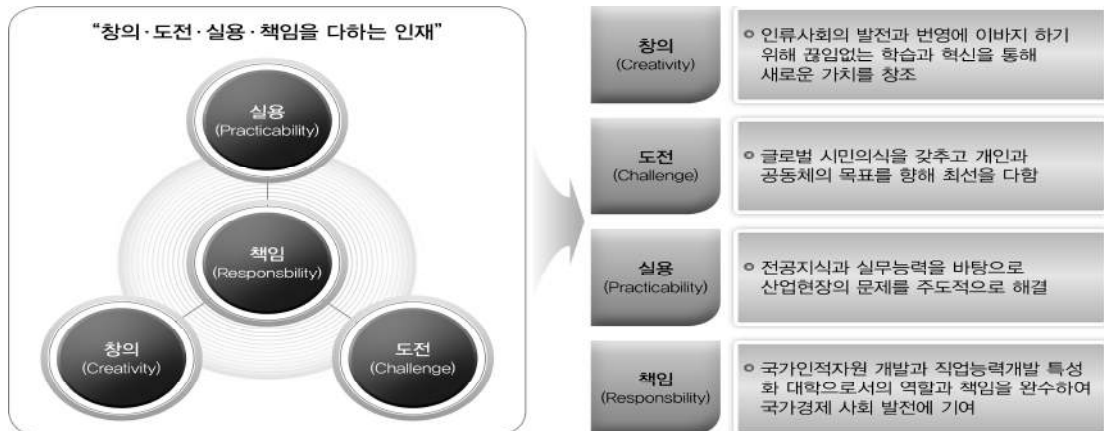
대학의 설립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해 1991년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의 전액 출연으로 설립된 특성화 대학으로 설립근거 법령에 따라 대학의 인력양성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05년 8월에 교육목표를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적자원개발전문가’양성으로 미션을 설정하였다. 이런 내용은 VISION 2020 체계도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1] VISION 2020 체계도

다. 실무형 창의형 인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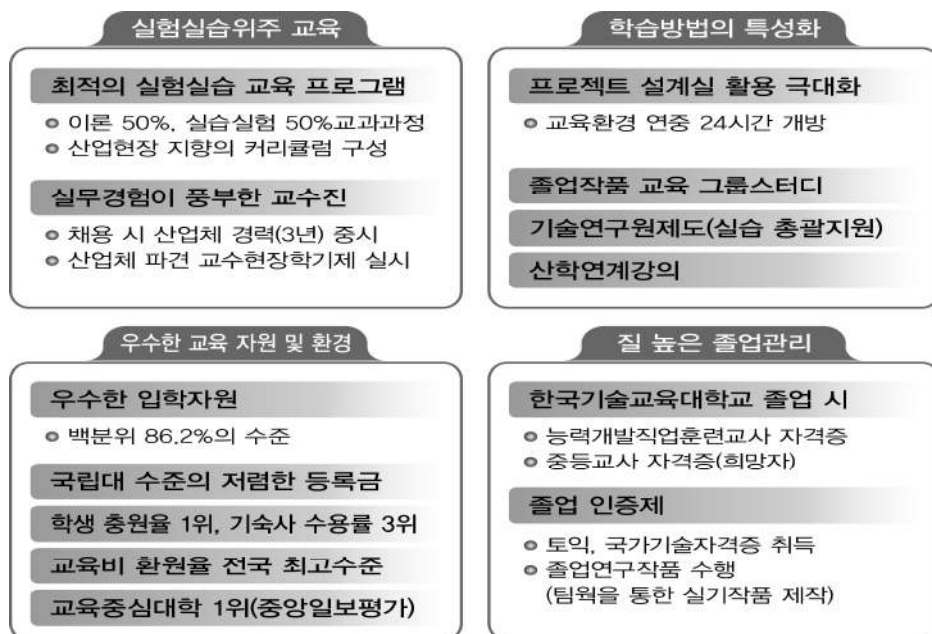
‘실사구시’를 교육이념으로 비전을 ‘국내 최고의 실천공학과 인적자원개발의 창조적 융합대학’으로 설정을 하여 창의·도전·실용·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그림 II-2] 한기대 인재상

라. KoreaTech의 특성화 교육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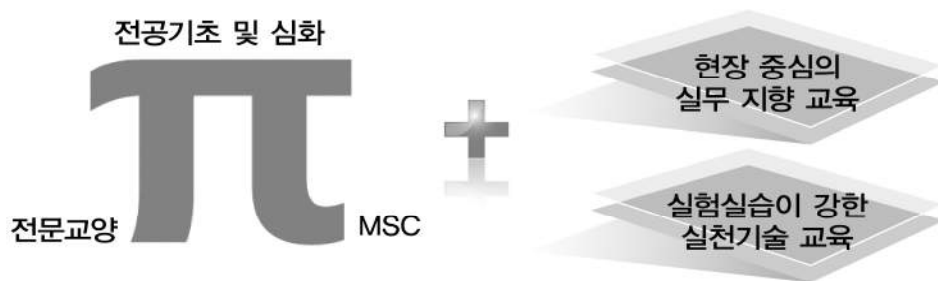
한기대는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이며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교육중심대학으로서 크게 ‘학부 교육’과 ‘평생 교육’영역에서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그림 II-3] 한기대 학부교육 특성화 모델

마. 교육과정 구성 : ‘ π -plus형 교육 시스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실험·실습이 강화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학 계열에서는 2002년도부터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 제안한 π 형 교육체계를 기본 틀로 [그림 II-4]와 같이 한기대의 특성화 정책이 반영된 π -plus ($\pi+$)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학 계열도 이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π -plus형은 실험·실습이 강화된 현장중심의 실무 지향 교육과정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각 교과목별로 설정하고 수시로 검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림 II-4] π -plus형 교육 시스템

한기대 교육과정은 공학계열과 경영학계열로 구분되며, 졸업요건으로 공학계열은 150학점제, 경영학계열은 140학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교양영역, MSC영역, 전공영역 교과목으로 각각 구분하며, 과정별 특성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세부 교과 영역으로 편성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매년 부분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년마다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과정의 편성 시에는 산학협회의 의견수렴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여, 현장의 의견이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차등형 전공인정학점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도 주 전공을 6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3. 구성원

가. 교원

한기대의 최근 3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2년 77.3%, 2013년 79.9%, 2014년 82.4%로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4년 4월 1일 기준 69.0%이고, 이는 2014년 기준 국공립대학 평균 69.4%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임교원 수는 매년 신입교수를 임용함으로써 2012년 164명에서 2014년에는 174명으로 10명(6.4%) 증가하였다.

한기대는 실무중심 교육의 학교 설립 특성에 맞게, 신입교원의 전공적부 심사에 ‘해당분야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수들은 ‘교수 현장연구학기제’란 제도를 통해 3년마다 한 학기씩 산업현장에 파견돼 산업기술의 변화를 체험하고 돌아와 학생들에게 산업계의 기술 동향을 등을 담은 최신 공학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교양학부는 전임교수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교양, MSC(수학·기초과학·전산), HRD 3개 분과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I-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교원 현황

연도	학생정원 (명)	재학생수 (명)	학생정원 기준 교원 법정정원 (명)	재학생기준 교원법정정원 (명)	전임교원수 (명)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재학생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2012	4,400	4,949	212	237	164	77.3	69.2
2013	4,401	4,963	212	238	169	79.7	71.0
2014	4,402	5,254	211	252	174	82.4	69.0

나. 학생

한기대는 학생 수 5,000명 이하 규모의 지역 사립대학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의 산업기여도를 갖춘 공대 중심 대학이다. 학부생 비율이 94.7%인

학부교육중심대학으로 전체 재학생 중 학부 재학생 수 4,579명,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 258명이다.

입학 편제는 정원 900명 중 공학계열 85%, 경영학 계열 15%이며, 공학계열 6개 학부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건축공학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와 1개 학과(디자인공학과), 인문사회계열의 산업경영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 직원

2014년 기준으로 직원은 총 168명이며,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27.2명이고, 최근 졸업연기로 인한 재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4년 공시한 전체 대학(47명) 및 국공립대학(37.9명)의 직원 1인당 학생 수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우수한 편이다.

<표 II-3>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교직원 구성 현황

구분	교원		직원			합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인재개발직	업무지원직	계약직	
인원	174	193	145	19	4	535

4. 물리적 환경 : “우수한 캠퍼스”

가. 외곽지역에 있는 캠퍼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천안시 병천읍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기숙사 수용인원은 2013년 기준으로 3,082명으로 기숙사 수용률은 65.6%로 대학 평균 14.%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대학 근처의 원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타 지역, 특히 수도권 학생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말에도 캠퍼스 내에서 머무를 때가 많다. 통학 학생들도 자취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캠퍼스에서 머물게 된다.

나. 캠퍼스 시설과 분위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캠퍼스는 20년이 갓 지난 역사에 걸맞게 매우 깨끗하며, 1캠퍼스 부지가 약 379천 평방미터로 중소규모로 알차고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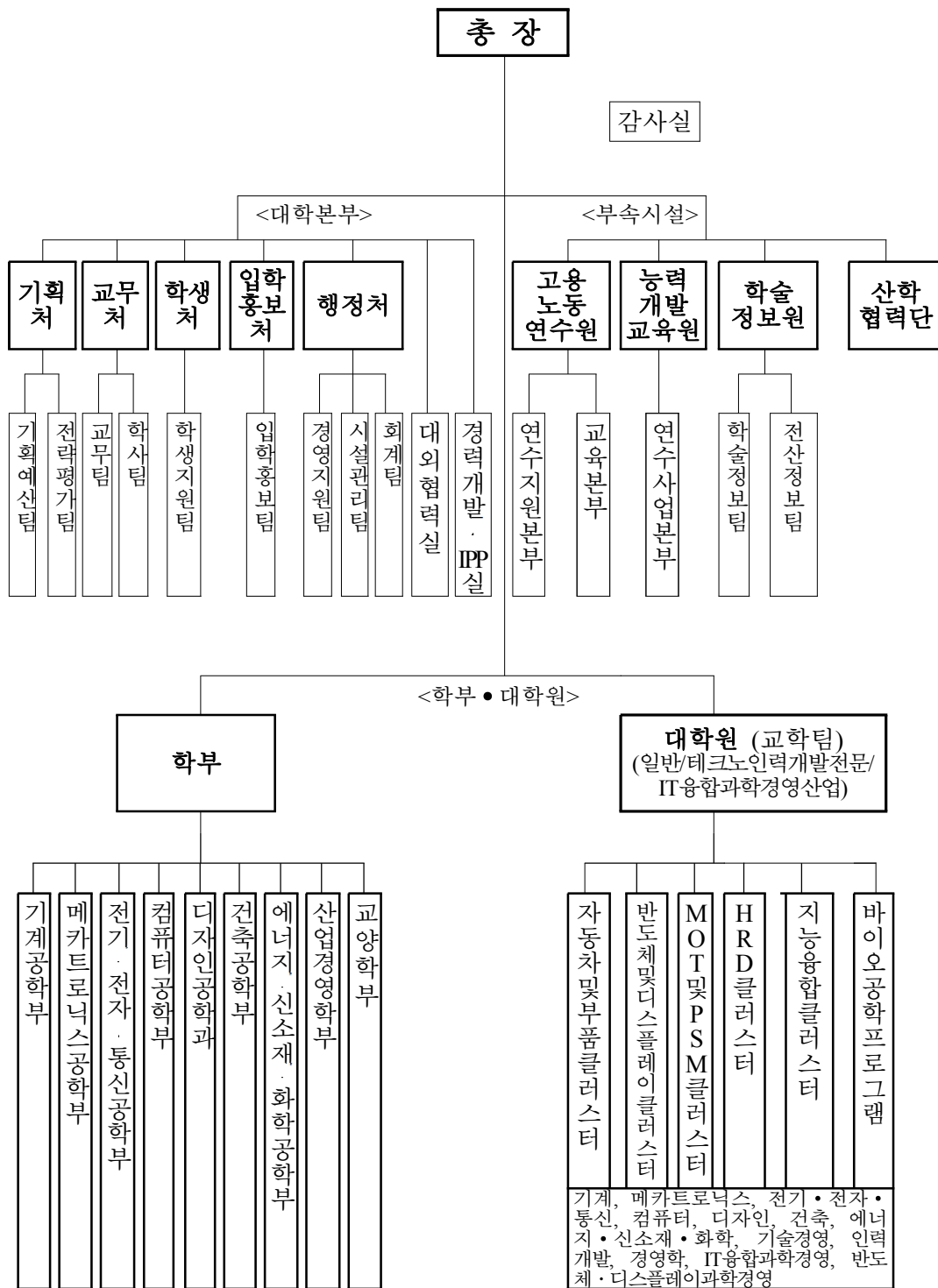
평소의 학교 모습은 수업이 많은(학생의 85%를 차지하는 공대 학생의 경우 주당 평균 공대는 27~28시간) 관계로 주간시간대에는 비교적 한산하며. 오후 6시가 넘어야 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수업량과 기숙사 수용률이 높은 부분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 문화를 타 대학과 차별화하고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방학 중에도 전체학생의 1/4(약 천여 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계절 학기를 수강할 정도로 독특한 연중무휴 학업분위기는 타 대학과 확연히 다른 면이 있다.

5. 행정부서와 대학 지배구조

가. 행정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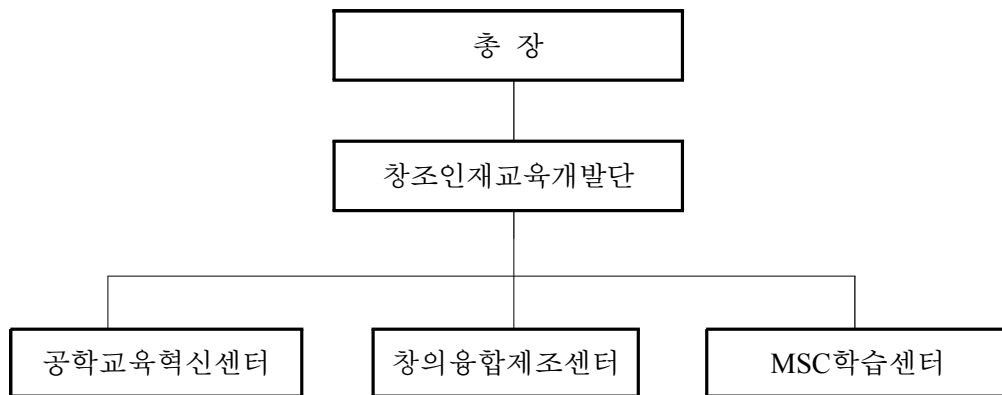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5처 3실 4부속시설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5] 한기대 행정조직도

타 대학과 유사한 조직구조로 보일 수도 있으나 한기대만의 차별화 교육제도인 IPP(장기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면을 고려한 경력개발IPP실(2011년 설치) 운영이 독특하며, 대학 고유의 기능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무원 직무교육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고용노동연수원, 재직자 기술분야 중심의 재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개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3학년도에 교무처산하에 창조인재교육개발단을 설치하여 CTL기능과 특화된 교육역량 강화 기능을 아우르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다음은 창조인재교육개발단 조직도이다.



※ MSC는 수학과학전산을 의미

[그림 II-6] 한기대 창조인재교육개발단 조직도

나. 대학 지배구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출연하여 설립된 독특한 탄생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사립대학으로 분류되어 지배구조는 타 사립대학과 동등하다. 타 사립대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매년 일정금액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부분이며,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를 두어,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6. 커리큘럼 등 기타 특징

가. 일학습병행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제도는 기존 기업 인턴 등 단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3~4학년을 대상으로 10개월간(3학년 때 6개월, 4학년 때 4개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체에 파견돼 현장실습을 하는 한기대만의 새로운 공학교육모델이다. 이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통해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현장밀착형 교육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IPP 파견 기간 동안 총 16학점을 취득하고, 매달 기업체와 학교로부터 월평균 1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IPP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분야 현장경험을 체험하고 진로선택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첨단기술과 장비를 경험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공학이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체험하여 문제 해결형 인재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현장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전공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하게 된다. KOREATECH IPP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IPP형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통해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있다.

나. 취업생들의 높은 전공일치도

한기대 취업생들의 전공일치도는 89.1%인데 이는 매월 2차례 대기업 인사부서장을 초청해 취업설명회 및 특강을 실시하고, 방학때 학부별로 1박 2일간 취업캠프 마련-맞춤형 이력서 클리닉, 토론 및 개인 면접 클리닉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내 취업 상담 전문가들이 연간 약 1천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1:1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적 가치관 함양,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 포트폴리오 작성 및 진로 탐색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잡카페(JOB CAFE)를 설치하여 무인화상면접기, 인적성검사 문제집, 기업정보, 취업전략, 어학, 자기계발, 홈커밍데이 등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 ‘휴먼아카데미’ 특강

학생들이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기 중 매월 1회씩 인문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 명사들을 초청하여 ‘휴먼아카데미’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라. P&S Open Chair

P&S Open Chair라는 이색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총장(President)이 학생(student)을 대상으로 직접 특강을 실시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소통을 하는 행사로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 대학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재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과의 소통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강좌 프로그램이다.

Ⅲ. 한기대 학부교육의 특징

한기대는 지방에 위치한 사립대학이지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타 사립대학과 달리 매년 일정금액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등록금이 타 사립대학보다는 매우 저렴하다(공학계열 학기당 261만원). 전체 재학생의 70%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비용도 3인실 기준 32만원(학기당)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한국기술교육대학은 ‘KOREATECH’이라는 이름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이는 ‘korea와 공과대학의 university of technology’의 합성어로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지향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기대는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으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학부모나 교사들의 선호도가 높고, 공고생들의 서울대라고 인식이 될 정도이다. 이와 같이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그 만큼 내실 있는 교육으로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한기대만의 학부교육의 특징이 있다.

한기대 학생들은 대학생생활의 낭만을 경험하기도 전에 고등학교의 연장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졸업학점이 130학점에서 140학점인데 반해 한기대의 졸업학점은 150학점이고 이 중에서 약 50%는 실습위주이고, 실습의 경우는 수업시수가 최소한 1.5배 이상 늘어난다. 한기대는 공학 전공과목의 3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2시간 이론과 2시간 실습, 총 4시간을 수강해야 3학점을 얻을 수 있다(이론 실습비율이 1:1). 학습의 양적으로 볼 때, 다른 대학에 비해, 총 이수 학점도 많고, 수업시간이 많기 때문에 1, 2학년때부터 고등학교 시간표랑 비슷할 정도로, 짝 차있을 수밖에 없다. 약 70%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고 학교자체가 천안의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로 학교 주변에 살고 있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수시로 만날 수 있다. 기숙사에서 모일 수도 있고 실습실도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실습실에 모일 수 있다. 학생들은 “학점 따기 힘들다”고 한다. 한기대는 많은 학습량으로 인해서 많이 놀지는 못하고, 공부하느라 매진하는데, 그게 오히려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서 좋다는 게 학생들의 의견이다. 체력을 키우듯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한기대의 학생들이 많은 학습량을 이겨내는 데는 한기대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것은 1학년 때부터 팀 단위 과제가 많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인식 때문

에 처음에는 힘들어 하지만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2인 1팀으로 작품을 하기도 하고, 4명이 한 과제를 하기도 한다. 한기대 수업이 대부분 학생들의 팀별 학습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공대의 특성상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이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협동적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기대 교육의 두 축은 실천공학자와 인적자원개발전문가이다. 실천공학자로 교육하기 위해 실험실습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인적자원개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HRD 관련 학점을 16학점 정도를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한다. 학생들은 자기가 가진 전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한기대의 교육은 현장과 밀착된 전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취업에서 강점을 나타내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기대에서는 2학년에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3학년으로 진급할 때는 지도교수를 선택하게 되면, 대학원 체제처럼 학부에서부터 지도교수의 Lab에 소속되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지도를 받게 된다. 현장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현장실습을 체계화하려는 제도인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제도이다. IPP제도는 현장실습을 10개월에 15학점으로 한 달에 1.5학점을 부여해서 6개월 나가면 9학점, 4개월 나가면 6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IPP 제도를 통해서 4개월 정도 일 해보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역량과 적성을 파악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들은 학생복지시설이 좋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 생활관(기숙사)의 수용 인원도 많고, 학교급식도 비용 대비 질이 높고, 저렴한 커피 값 등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등록금이 적은 편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존재한다. 학생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실습실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실습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 또한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많아서 학생들은 학교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기대는 현장과 밀착된 전공교육을 강조한다. 전공 수업 중 절반이 실습이고,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장비를 배치하고 있고 1인 1장비 실습으로 본인이 실습하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OJT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실습 교육을 하고 있고, 실습장비가 현재화되어 있어 실제 직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다.

한기대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한기대의 졸업인증제

가 그것인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작품을 의무적으로 해서 전시를 해야 하고, 토익을 기준으로 해서 600점이 넘어야 하며, 자격증을 산업기사 이상 하나를 무조건 취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다. 현재 10% 정도의 학생들이 졸업조건에 걸려서 제때에 졸업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기대의 학부교육의 바탕에는 책임지고 지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3학년 2학기 때 IPP 나가기 전에 전공 계절 학기를 듣게 된다. 전공계절 학기는 IPP를 나가는 학생만 수업을 하는데, 미리 현장에 나가기 전에 부족한 학점을 보완하거나 최소한 배워야 할 전공을 제대로 습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업이다. 전공계절 학기는 무료로 여름 방학 때 수업이 이루어진다. 한기대에는 MSC센터가 있는데, 수학이나 물리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밀착 지도해주고 있다. 또한 공학위주의 학교 특성상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문학 관련 강좌나 활동을 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인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일 오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휴먼아카데미이다. 수요일마다 인문학 강의를 10회 이상 제공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교과목(2학점)으로 휴먼아카데미 강좌를 일정 횟수를 채우면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학부 우수교육기관으로서 한국기술교육대학(이하 한기대) 학부교육의 특징을 현황과 구성원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보고서’에 나타난 양적 통계 수치와 함께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부교육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K-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의 대학생 학생참여 6요인인 학업적 도전, 지적 활동, 능동적-협동적 학습, 교우관계, 교수와 교류, 지원적 대학 환경을 중심으로 한기대 학부교육의 현 모습과 이에 대한 구성원의 경험 및 인식, 의견, 감정 등을 중심으로 학부교육 우수성을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한기대는 2013년 K-NSSE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수와 교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전체 대학(54개교) 및 ACE 대학(25개교)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한기대는 6개 영역 중 ‘지적 활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른 대학과 비교

할 때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교수와 교류’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6개 영역 중 ‘지원적 대학 환경’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Ⅲ-1> ACE대학 및 전체 참여대학과의 평균비교

	한기대 (n=400)		ACE(25개교) (n=9,459)		전체(54개교) (n=18,257)	
	M	SD	M	SD	M	SD
학업적 도전	12.2	4.1	10.5	3.8	10.4	3.8
지적 활동	14.4	2.7	13.5	2.9	13.3	2.9
능동적-협동적 학습	12.4	2.3	11.3	2.6	11.1	2.7
교우관계	11.3	3.0	10.8	3.0	10.7	3.0
교수와 교류	13.9	4.5	14.0	4.3	13.9	4.3
지원적 대학 환경	9.7	2.5	8.9	2.5	8.6	2.6

출처: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3). 2013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학업적 도전 : “실력은 파고 드는 자의 몫”

학업도전은 대학생들이 학업 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다.

<표Ⅲ-2> K-NSSE 자료: 학업적 도전 영역

	한기대 (n=400)		ACE(25개교) (n=9,459)		전체(54개교) (n=18,257)	
	M	SD	M	SD	M	SD
1학년(n=32)	11.2	3.8	9.7	3.5	9.6	3.6
2학년(n=99)	11.6	4.1	10.6	3.7	10.4	3.7
3학년(n=132)	12.0	4.1	11.0	3.9	10.9	3.9
4학년(n=137)	12.9	4.1	10.9	3.8	10.9	3.9
전체	12.2	4.1	10.5	3.8	10.4	3.8

출처: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3). 2013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업적 도전에 대한 K-NSSE 결과는 전체대학 및 ACE 대학과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해도 모든 학년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학업적 도전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대 학생의 학업적 도전이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한기대 구성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한기대 학생들의 학업적 도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많은 학습량’이었다. 그 다음으로 ‘실험실습중심 교육’, ‘질 높은 졸업관리’, ‘HRD 교육’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가. 많은 학습량을 유도하는 학사운영: “졸업학점이 150학점이라니”

한기대의 졸업학점 150학점으로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대학이 2,500시간을 수업한다면 한기대는 3,800시간을 수업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와 학생 모두 힘들지만, 기업과 학생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설립당시 졸업학점이 160학점이었고, 실습시간은 절반만 학점으로 인정해주었다. 졸업학점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교수법이 바뀌면서 학생들에 대한 과제가 점점 많아져서 학생들의 공부량은 적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단 다른 학교, 졸업 학점은 130에서 140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150학점이 졸업학점이거든요. 타 학교에 비해서 10학점, 20학점 이상 더 들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표도 보통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생각하면 널널한 것 같은데, 막상 1, 2학년은 고등학교 시간표랑 비슷할 정도로, 짹짹 차있거든요. 많이 놀지는 못하고, 공부하느라 매진하는데, 그게 오히려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좋아요. (4학년 학생 A)

학생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생과 비교하면 대학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좀 못 누리는 측면도 없잖아 있죠. 근데 사실 남들보다 더해야 지금의 학교 네임밸류가 있지요. 예전에는 졸업 이수 학점 더 많았었죠. 거기에 비하면 줄어든 편인데 여전히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죠.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평교수 A)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많은 과제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혼란을 시킴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체력을 키우듯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능력도 커지고, 결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보면은 학부생들이 랩에서 밤샘하고 그런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1학년 때부터 팀 단위 숙제 하다가 보면 그게 이렇게 가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입학처장)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교수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액티브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한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는 경진대회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많이 들어야 해요.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듣고, 애들 과제도 많고 하여튼 힘들어요. (HRD 부센터장)

주중뿐만 아니라 월요일 날 과제 제출이다. 그러면 일요일 날 저녁 때 10시에 만나서 애들이 과제를 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모일 수도 있고 실습실에서도 모일 수 있고, 실습실도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학생들이 모여 있기만 한 게 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효과는 결국은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기회란 표현이 좀 (웃음) 강제로 반강제로 그런 여건이…….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평교수 A)

네 그 저는 보통 한 학기에 많게는 한 4개 4개 정도의 팀 프로젝트 정도 적을 때는 한 2~3개 4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한 2주에 한번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전기전자통신공학부 평교수 A)

공대에 비해서는 안 빠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산경학과 학생들은 맨날 말하는 게 과제도 힘들고, 저희도 힘든데 저희도 빠세다고 생각하고 산경이 공부만 해요. 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점 따기 힘들다. ‘라고 하는데, 공대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더 힘들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그냥 ‘공대에 비해서 안 힘든 거니까 그냥 참고 지내자.’ 이런 마인드예요. 저희도 나름 힘들고 빠센 것 같아요. (산업경영학부 4학년 학생 B)

대학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고등학교 때는 진짜 달달달 외우면 되지만, 대학교 공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거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공고 나온 애들은 이해력이 좀 더 안 되니까. 거의 밤새서 공부할 때 많아요. 새벽 3,4시. 일찍. 시험기간에 항상 밤낮이 바뀌어요 저희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니까.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학년 학생 C)

나. 현장에 다가서는 전공 교육 : “실력의 척도는 현장 적응력”

한기대는 공학 전공과목의 3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2시간 이론과 2시간 실습, 총 4시간을 수강해야 3학점을 얻을 수 있다(이론 실습비율이 1:1). 학습의 양적으로 볼 때, 다른 대학에 비해, 총 이수 학점도 많고, 수업시간 또한 많았다.

전공 수업 중 절반이 실습이고,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장비를 배치하고 있고 1인 1장비 실습으로 본인이 실습하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OJT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실습 교육을 하고 있고, 실습장비가 현재화되어 있어 실제 직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다.

기술연구원제도를 두어, 한 과목당 한명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실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습 및 재료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습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재료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기대는 실천공학 강조하고 있고, 실습과 실천공학을 강조하다보니 학생들과의 밀착도가 높아지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학설계 및 졸업연구설계 등은 학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도교수와 학생의 강한 고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 졸업인증제로 성취수준을 명확히 하기

한기대는 졸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이수, 졸업작품, 토익 600점 이상, 산업기사이상 자격 취득 등이 요구된다. 현재 10% 정도의 학생들이 졸업조건에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희가 150학점 따는 거는 의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졸업하려면 아까 말씀 드린 졸업 작품을 의무적으로 해서 전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익을 기준으로 해서 600점이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산업기사 이상 하나를 무조건 따야 돼요 자기 전공 분야에. 그래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경력개발, IPP 부서장)

한기대는 졸업인증제 특징 중 하나가 졸업작품을 제출하는 것이다. 경상계열의 학생들은 졸업논문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공대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서는 졸업작품을 제출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완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2인 1팀으로 작품을 하기도 하고 뭐 좀 과제 작품의 규모가 크면 4명이서 한 과제를 하기도 하고 통상은 팀으로 2명 두명 이상 작품 하니까 교수님별로 따지면 4학년들 졸업작품 전시회 기준으로만 보면 한 해에 뭐 적으면 두 팀에서 뭐 많으면 네 팀까지 지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평교수 A)

4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여름 방학 중 그리고 이제 그 때 까지는 계속 이제 자주 매주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 안에 그 공학 설계는 3학년인데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Official 하게 만나게 돼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번으로 그냥 끝내는 분도 있고 뭐 진행사항 중간 중간 점검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매일매일 하는 건 좀 어렵 구요 그 보통 이제 개발 학생들 개발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봐주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좀 짜줘서 해줘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죠.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평교수 A)

퀄(Qualification)제도 운영과 함께 방과 후 영어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3학년 올라가기 전 영어졸업조건을 통과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면담학생 중 일부는 학생에서 제시하고 있는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특히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매우 많고, 대학졸업 후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가 개인적으로는 제 입장을 대변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음 너무 취업에 강점을 둔 학교다 보니까 취업 위주의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외 저 같이 진학을 고려하는 사람이나 창업 같은걸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적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졸업 요건 같은 경우가 150학점을 요구하고, 산업기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졸업 작품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충족시키기 힘든 경우, 제 때 충족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 중에서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진학을 보는 학생에게는 그렇게 중요시되는 요소가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학년 학생 D)

<사례 1> 한기대 졸업인증제의 졸업요건

- 교과과정에 의한 전 과정 이수 및 평점평균 2.0이상 취득
- 이수과정별 학점취득은 교과과정운영기준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과)별 취득학점의 구성 및 배점을 충족
-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 취득 또는 실기평가 합격
- 실기평가 대체 인정 가능자 : 2005학년도 입학자까지
- 실기평가 대상자는 학부(과)별 전공과목 중 다음 실험실습과목 최소이수학점 충족하여야 함

학부(과)	최소이수학점
기계정보, 메카트로닉스, 정보기술, 인터넷미디어, 신소재	25
디자인, 건축(공학)	30
응용화학	34
건축(건축학)	36

* 외국인학생은 면제 사항임

- 졸업연구실적물 심사 합격
- 졸업설계/졸업논문 관련과목 중 최 후수과목 이수 시 합격
- 외국어능력인정 요건 충족
- 졸업설계/졸업논문 관련과목 중 최 후수과목 이수 시 합격
 - * 외국인학생은 면제 사항임
 - * 대체인정기준 : 위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모의토익 또는 별도로 개설하는 강좌 (토익스타터독해 및 토익스타터청해) 이수.

구분	인정기준(점수 · Level)	
	2003입학자부터	2002입학자까지
TOEIC	600점	500점
TOEFL IBT	57점	-
TEPS	476점	402점
G-TELP	Level 3 71점	Level 3 56점
TOEIC Speaking	Score 120	Score 110
TOEIC Writing	Score:120	Score 110
TEPS Speaking	3+	3
TEPS Writing	3+	3
GST	5	6
OPic	IM	IL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N2	2급, N2
JPT	600점	600점
SJPT	6	6
한어수평고시(新 HSK)	초중등 3급, 新 HSK 5급	초중등 3급, 新 HSK 5급

• 관련규정

학칙 제 46조(졸업)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 4호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 학칙과 당해 학부(과)의 교과과정에 규정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2. 해당 훈련교사직종에 관련 있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 합격한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을 인정받은 자

② 8학기 이상 등록 한 자(조기졸업희망자는 7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전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 신청원을 졸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만 인정한다.

④ 수료자가 제1항 각 호의 졸업요건 이수에 필요한 경우 납입금 및 수강신청 기준에 따라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 등록할 수 있다.

⑤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1항의 졸업요건 및 당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자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홈페이지)

라. 대학의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 HRD 교육

한기대 교육의 두 축은 실천공학자와 인적자원개발전문가이다. 실천공학자로 교육하기 위해 실험실습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인적자원개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HRD 관련 학점을 16학점 정도를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한다. HRD교과는 개론, 기업현장교사역량, 기업HRD 역량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들은 학생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7~8번 정도의 대규모 개정이 있었고, 그 외 작은 개정들이 있어왔다.

우리가 제도 자체를 HRD, 인적자원개발 관련된 교과목들을 대신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저희가 인적자원개발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 우리학교 학생들은 자기의 전공이 있지만 그 전공 플러스, 자기가 가진 전공을 다른 사람들에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같이 배양하는 것을 일단은 저희 학교의 목표로 가지고 있거든요. (HRD 부센터장)

이와 함께 HRD 부전공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한 달 간의 실습도 참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기술이나 업무를 가르치거나 HR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HRD 센터에서는 HRD 연구 기능(주로 국가차원의 NHRD)만을 가지고 있다가, 2014년부터 HRD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HRD 관련 교과개발(교육과정 개발)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HRD센터는 어차피 HRD부전공과 관련해서 교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또 HRD부전공하고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HRD부전공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역할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RD 연구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 드린 것은 HRD 부전공과 관련된 어떤 학제운영과 관련된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HRD와 관련된 연구죠. 근데 여기서 HRD가 우리는 이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보시면 되요. 우리가 하고 있는 HRD는,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의 HRD와는 약간 다르게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NHRD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외국의, 미국의 개념으로 Work Force Education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HRD 부센터장)

HRD 부전공의 내실화를 위해 학점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공학과들의 저항이 심해 학점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16학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HRD 교과목은 모든 학생이 16학점을 수강해야 하는 관계로 한 학기에 많은 강의가 개설되고 있다(한 강좌에 50명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HRD 전임 교원(현재 7명)이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간강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저희가 18학점 20학점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교내의 학점 체계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교수님들 저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글썄요... 저희 학교는 제가 그때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 변화에 그래도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면서 변화를 잘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HRD 부센터장)

2. 지적활동: ‘전방위 학습 무대’

지적 활동에 대한 K-NSSE 설문 결과를 보면, 한기대가 전체대학 및 ACE 대학과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해도 모든 학년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지적 활동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3> K-NSSE 자료: 지적 활동 영역

	한기대 (n=400)		ACE(25개교) (n=9,459)		전체(54개교) (n=18,257)	
	M	SD	M	SD	M	SD
1학년(n=32)	14.3	2.7	13.1	2.8	12.9	2.8
2학년(n=99)	14.3	2.7	13.6	2.9	13.3	2.9
3학년(n=132)	14.5	2.5	13.9	2.9	13.6	3.0
4학년(n=137)	14.6	2.8	13.7	3.0	13.6	3.1
전체	14.4	2.7	13.5	2.9	13.3	2.9

출처: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3). 2013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기대 학생의 지적 활동이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한기대 구성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한기대 교육의 특징 중 하나가 Lab 중심의 전공 교육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외에도, IPP제도 등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SC센터의 튜터 제도나 휴먼아카데미를 통해 기초역량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가. 팀워크로 하는 교육: Lab 중심의 전공 교육

한기대에서는 2학년에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3학년으로 진급할 때는 지도교수를 선정하게 된다. 지도교수를 선택하게 되면, 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원 체제가 학부에서부터 지도교수의 Lab에 소속되어 대학원생 수준처럼 하나의 팀이 되어서 지도를 받게 된다.

지도교수의 랩에서 거의 뭐 생활하다시피 대학원생처럼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대학원생들한테도 배우고 이렇게 운영하는 연구실도 있고 뭐 그런 특별한 그 공간에 뭐 몇 시간 대학원생은 보통 출퇴근 개념 이거든요. 거의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자기도 수업하면서 틈틈이 와서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랩이 딱 차서 그럴 수도 있고 랩에는 특별히 오지는 않고 이제 4학년 정도만 작품 만들어야 되니까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뭐 으로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정도의 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학과마다 좀 학부/과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평교수 A)

Lab안에서 팀(3-4명)을 구성해서 졸업 작품을 구상하고, 매주 한번 정도 지도교수와 회의하여 발전시켜가고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력, 발표력 등을 향상시킬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 결과물은 4학년 2학기에 졸업 작품으로 발표하게 된다.

저희 Lab실에서 자작 자동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자작 자동차. 하이브리드 대회나 전기차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랩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방학 때도 같이 남아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 기간이 다가오면 계속 2주 동안 계속 밤새면서, 손발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저는 장점 밖에 없는 게, 서로 가족같이 되니까, 나가서도 만나면 선배들 있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미리 방학 때 만들어 놓으니까, 학기 중에 공학설계나 졸업설계에 대해서 쫓기지 않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거 같습니다. (4학년 학생 A)

이 외에도 Lab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고, 팀워크를 배우고 발표력 향상, 스킬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체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의 시간투자가 필수 조건이다.

다른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스펙을 만드는데 집중하는데 반해 한기대 학생들은 전공교육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이 노동시장 요구에 부합되어 취업률로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 Lab은 교수들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도학생이 많은 경우는 3학년 때는 Lab에 있지 않고, 4학년부터 Lab에서 졸업작품을 시작하기도 한다. Lab마다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교수의 연구과제에도 참여하는 학부생들도 있다.

나. 현장과 연계된 학습(일학습병행제, IPP)

현장실습을 하는 대학은 많지만 제대로 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한기대는 최소 4개월은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작하였다. 현장실습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도가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제도이다. 타 대학과 비교해서 한기대의 공학교육제도 대표 상품은 IPP이다.

3학년과 4학년이 대상이 되며, 최대 10개월까지 현장실습이 가능하다. 3학년 4개월, 4학년 4-6개월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위해 학기나 학년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4학년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되었다.

실습을 나가려면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내보내야 하므로, 3학년이 되면 기업

에서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학점은 10개월에 15학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한 달에 1.5학점정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점인정은 보통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4개월 또는 6개월에 15학점이나 16학점을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LINC 사업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편이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의 의미를 구현하고, IP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전공계절 학기를 개설하고 있다. 전공계절 학기는 IPP 참여 학생만 수강가능하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IPP 제도라는 걸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학교에서의 교육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걸 너희가 느껴봐라. 저희는 한 학기 동안 풀로 나가서 하거든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하고 3학년 때. 또 4학년 때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나가서 최대 10개월까지 나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자기주도적 학습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봤어요……. 3학년 2학기 때 나가고 4학년 2학기 때 나가면 예를 들면 3학년 2학기 때 IPP 나가기 전에 뭘 하나면 전공 계절 학기를 해요. 전공 계절 학기를 통해서 부족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전공 계절 학기는 IPP를 나가는 학생만 들어요. 대신 우리 애들은 나가면서 등록금을 다 내고 나가고요 그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하고 대신 전공 계절 학기는 공짜로 무료로 하죠.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여름 방학 때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경력개발, IPP 부서장)

참여 학생들은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모두 내야하고 기업에서 한 달에 100만원, 학교에서 4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4학년의 경우에는 채용연계형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채용연계형으로 학생을 받아도 기업에서 나중에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72%가 채용으로 연결되고 있다. 2012년 130명, 2013년 240명, 2014년 340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기는 힘들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최대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산학협력교수가 한해 50-70명을 관리하고 있고, 기업과 학생을 매칭하고, 실습을 잘하고 있는지 3번정도 체크,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있다. 평가는 기업 30%, 산학협력교수 30%, 지도교수 40%, pass/fail로 표시하고 자세한 평가는 따

로 제공하고 있다.

IPP 참여 학생들의 취업률이 4%정도 높은 편이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14% 높다. 취업역량이 낮은 학생, 취업준비만 높은 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유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생과 기업의 만족도 높고, 인턴십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이고 교육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IPP의 효과분석을 위해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나, 현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회계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은 GERP, 물류 쪽으로 일하고 싶었고, IPP 통해서 자재 조달이라던지 이런 걸 하고 왔거든요. 저는 ‘콘티넨탈’이라는 자동차 회사 거기에서 이제 자재 조달, MC팀 메트리어얼 컨트롤 부서에서 자재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6개월, 100만원, 돌아가는 조직에 속한다는 소속감도 되게 컸고, 이게 콘티넨탈 저희 회사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턴한테 주어진 업무가 잡일이 아니었어요. 같이 GERP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알려주시고, ‘통관진행’ 이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하지... 자재가 우리나라에 오는 과정이나 DHL, 페덱스 운송업체와의 관리 이런 것도 있었고, 현장사람들과 사무처 사람들의 그런 갈등을 푸는 그런 것들도 있었구요.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개월간 전문적으로 전공지식을 배웠다고보다는 나중에 아무런, 이런 것도 모르고, 조직에서 써야 하는 용어도 있는데 갖춰야 하는 것도 있는데, 모르고 취업을 했을 때 막막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배웠다고 생각해서 저는 친구들한테도 계속 가라고 해주거든요. IPP 꼭 가라고……. (산업경영학부 4학년 학생 B)

<사례 2> IPP 제도(장기현장실습)

• 개요

- 현장밀착형 장기 현장 실습을 통해 현장 경험을 배양하고 현장기술을 습득하며 전공 및 HRD 분야의 직무능력 함양을 통한으로 실무형 창의 인재 양성함
- IPP는 대학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에서 이수하는 제도로써 대학과 산업체간 미스매치 해소, 학생 실무능력 및 취업률 향상,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함. 이는 기존의 현장실습 제도와 차별화되는 체계화된 한국형 Co-op(Cooperative Education: 산학협동 교육)모델임
- 학생들은 기업체로부터 월평균 100만원 내외의 수당을 받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도 취득 (최대 15학점)할 수 있음

구분	교과목명칭	이수영역	비고
장기현장실습 I (6개월)	장기현장실습-전공핵심	전공핵심	“인턴및HRD현장실습”과 동일교과목
	장기현장실습-전공일반1	전공일반	
	장기현장실습-HRD1	HRD일반	
장기현장실습 II (4개월)	장기현장실습-전공일반2	전공일반	“인턴및HRD현장실습” 또는 “장기현장실습 I”기 이수자
	장기현장실습-HRD2	HRD일반	
	장기현장실습-전공핵심	전공핵심	“인턴및HRD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전공일반2	전공일반	또는 “장기현장실습 I”
	장기현장실습-HRD2	HRD일반	미 이수자

- 코리아텍 학생들은 3~4학년을 중심으로 2012년 132명, 2013년 225명, 2014년 330명이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은 204개 기업체에 4~6개월간 파견을 나갔음
- IPP 형태는 채용연계형 (채용 등 취업역량 강화 목적/주로 4학년 졸업반 학생 참여)과
실무능력향상형(전공능력과 비전공능력 향상, 적성/진로 탐색 목적/주로 3학년 학생 참
여)으로 나뉘어 진행됨

• 교과내용

교과목	현장실습 유형	현장실습 내용
장기현 장실습	- 4개월(주 40시간 이상, 16주) 이상 - 전공분야 관련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 산업체 현장경험, 현장기술 습득, 산업동향 파악, 전공분야 실습 - 산업체 인력개발 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설 계, S-OJT 수행

• 수강신청 및 성적부여

- 수강신청 : 일반 학기 교과에 준하여 수강신청 하되, 장기현장실습 중에 타 과목 수강
은 사전 승인된 졸업연구 교과목과, 통산 3학점 이내의 순수 온라인 교과목에 한함
- 성적부여 : 성적처리가 확정된 시기의 학기에 "S/U"로 부여한다.

• 기타사항

- “장기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인턴 및HRD현장실습”교과를 이수할 필요 없음.
- 교과운영계획은 매학기 시작 전에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 기타 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은 장기현장실습(IPP)프로그램 운영 지
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 교과운영계획은 매학기 시작 전에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자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홈페이지

다. 부족한 학생들 함께 데려가기

학생들의 기초능력을 보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MSC교육센터(Mathematics Science computer)는 교과목에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또한 수학, 물리, 컴퓨터 등 기초과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보충교육을 시키고 있다.

MSC센터라고는 이게 보면 특히 이제 특성화고나 이런 데서 들어온 애들이 보면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해서 MSC센터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 부족한 애들을 보충해주는, 옛날에 우리 뭐 남아서 공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뭐 전담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장학생 형태로 해서 보통 이제 1,2학년인데 3,4학년 중에 수학이나 물리 학점 좋은 애들을 1:1로 멘티 시켜서 교육시켜주고, 그 다음에 원래 생각은 이제 퇴임한 수학 선생님이나 물리 선생님들이 애들을 지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또 MSC센터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가서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기획처장)

튜터링 교육체제를 도입하여 튜터와 튜티들의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튜터와 튜티로 짝을 지워 가르치도록 하고 있고 튜터는 근로장학생을 선발(3, 4학년 중 해당 과목의 성적이 좋은 학생 선발)하여 튜터로 활용하고 있다. 학기당 운영이 되고 있으며, 대체로 튜터 1명에 튜티 6~7명이 배정되며 일주일에 1~2회 정도 학습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저 물리 신청했었는데, 튜터 같은 경우에는 물리 성적이 좋으신 선배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가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한 학생한테 몇 명을 붙여줘요. 저희는 저까지 4명? 4명, 5명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 공간에서 정해진 날마다 수업을 해요. 근데 보통은 만약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는 되게 딱 체계적으로 칠판에 이렇게 하는데, 오빠고 막 이러니까, 오빠고 언니고 이러니까 되게 편하게 물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하게 물어보고, 친구들끼리도 편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가니까. 저희는 한 주에 두 번 만났었어요(전기전자통신공학부 1학년 학생)

튜터로 참여해 보았는데요, 참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공 대다 보니까 베이스가 되는 수학 과학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튜터링이 끝나면 튜터 들을 모아 총평회를 가지고 이를 다음 번 운영에 반영하고 있어요(메카트로 닉스공학부 4학년 학생 D)

기획 자체는 한 사람당 약 7명 정도로 붙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처음엔 그러니까 모집 자체는 좀 강제성으로 했지만 그게 실제로는 참여하는 거는 강제성이 없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메카트로닉 스공학부 4학년 학생)

<사례 3> MSC교육센터

• 개요

MSC교육센터는 공학교육의 기초학문인 MSC(수학·과학·전산)영역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하는 기관이다. MSC교과 과정의 체계적립 및 선진화된 교과과정 설계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MSC영역 교과 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개인별·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학생-교수간의 소 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강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현재 MSC 튜터링 학습프로그램, MSC질의응답 프로그램, 교수 Office-Hour 프로그램 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MSC교육센터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MSC튜터링 학습 프로그램	<p>○ MSC튜터링 학습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MSC교과목 성적 우수자(튜터) 1인과 MSC교과목 수강생 중 개별 학습지도가 필요한 학생(튜티) 5~7명을 한 분반으로 구성하여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p> <p>- 튜터 선정기준 : 해당 과목 성적우수자(A0)이상</p> <p>- 튜티 선정기준 :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의 수에 따라 개설과목 을 조절하여 다수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동적 운영</p> <p>- 튜티 수업시간 : 1일 90분씩 주 2회 수업참여</p> <p>○ 개설 교과목 : MSC(수학·과학·전산)교과목 중 1학년 필수 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원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설 운영</p>
MSC연습실 질의응답	<p>○ MSC교과목 이수 성적이 우수한 수학·물리·전산 근로 장학생을 선발, MSC연습실 및 MSC전산실에 배치하여 근로장학생 근무시간 내에 자유롭</p>

프로그램	<p>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1:1 수준별 학습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3명), 물리(2명), 전산(3명) 근로장학생이 주·야간 근무시간표를 정하여 MSC연습실 및 MSC전산실에 근무하며 질의응답 프로그램 진행 ○ 근로장학생 1인당 주 8시간 이상 근무
MSC교수 Office-Hour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C담당 교수의 Office-Hour를 활용한 수학·물리 주간 질의응답 프로그램 진행 (MSC교육센터 및 교수연구실) ○ MSC 담당교수 19명 참여 (주당 전임교원 2시간 , 외래교수 1시간 배정 : 총 28시간) ○ 기존의 담당교과 수강생에 한하여 활용되던 Office-Hour를 과목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시간 운용이 확대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수법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Maple TA 공통퀴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과제 및 퀴즈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반응과 수행능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웹 기반 시스템인 Maple TA를 MSC교과목 수업 자료로 활용 ○ 기존 학기당 3~4회에 걸쳐 진행하던 지필형 퀴즈를 Maple TA를 활용한 온라인 퀴즈로 전환함으로써 문제 출제 및 채점에 필요한 수고 감소 ○ 매번 문항의 순서 및 숫자가 변경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컨닝이 힘들고,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 ○ 기초수학, 대학수학, 미적분학Ⅰ, 미적분학Ⅱ, 응용확률및통계, 기초확률및통계, 일반물리및실험Ⅰ, 일반물리및실험Ⅱ 등 8개 교과목에서 Maple Ta를 활용하여 과제부여 및 공통퀴즈 진행
자료: 한기대 내부 제공자료	

이 외에도 입학 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교육과 입학사정관 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을 한기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있다. 집체교육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입학 전 미리 대학기초 영어와 수학 등을 교육시켜 입학 후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제도이다. 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고, 성적이 좋으면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입학 후 다시 수강을 하고 있고, 집체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입학사정관 캠프는 입학사정관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 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학과 투어, 동료학생이나 선배들을 만날 기회를 주고 있다.

입학사정관 캠프가 1박 2일 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학교를 미리 투어를 하고, 애들이랑 미리 같은 과 애들끼리 안면을

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캠프, 그 때 동아리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선배들이랑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고. 각 과에서 우리 과가 어떤 것을 하자는 설명도 듣고, 애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 했었어요.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학년 학생 C)

라. 사고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 강조: 휴먼아카데미

공대교육(전공교육)만 집중하다보니 학생들의 수업부담도 많고, 인문 교양 영역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150학점 중 HRD 16학점(필수학점, 교육학+리더십)을 제외하면 134학점이고 이 중 교양의 비율이 매우 적다.

교양의 폭이 작아요. 선택할 게 없어요. 넓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공만 듣게 되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애들이. 그 교양으로 힐링도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힐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공은 들어야 하는 거니까 듣는 거고, 강압적인게 없지 않아 않은데... 교양은 내가 선택해서 철학을 듣고. 저는 아직도 1학년 때 들었던 철학이, 그 수업이 되게 맘에 들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름 다들 사탐공부하고 과탐공부해서 온 애들인데, 있죠. 있는 것 같아요.(산업경영학부 4학년 학생 B)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휴먼아카데미이다. 수요일 오후 수업을 없애고, 인문학 관련 강좌나 활동을 하게 하도록 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인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일 휴먼아카데미를 8회 정도 개최하고, 비규칙적으로 인문학 강의를 10회 이상 제공하고 있다. 마일리지 교과목(2학점)으로 휴먼아카데미 강좌를 일정 횟수를 채우면 학점을 부여하고 이다.

공대 교육만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인문학 쪽이 중요시되니까 그럼 수요일 오후에는 모든 수업을 하지 마라. 수요일 오후에는 우리 학교 수업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 때는 인문학 쪽 관련해서 휴먼 뭐.. 아카데미니 뭐니 해서 인문학 관련 활동만 하게끔. 그게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나? 그 때부터는 수요일 오후에는 수업 없이 애들 인문 소양 쪽 해서 유명한

분들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애들한테 도움이 되요. 근데 그게 작다 보니까 가자 그러면 사실은 잘.. 이렇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기획처장)

<사례 4> 휴먼아카데미

휴먼아카데미(Human Academy)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문학 공개강좌이다. 휴먼아카데미는 최고 수준의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명 인사를 포함한 국내 초일류 강사들을 초청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문화적 시야를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기대는 현장중심 실천공학교육의 교과운영으로 인해 더욱 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에 2006년부터 “휴먼아카데미”라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휴먼아카데미 특강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연사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리 학생들의 사고(思考)의 폭을 넓혀 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3학년도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인문학의 날”로 지정하여 휴먼아카데미 특강을 비롯한 인문강좌, 독서PT대회, 인문학여행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휴먼아카데미의 초청 특강을 통하여 공학 기술교육 중심의 교과운영에서 결여되기 쉬운 인문학이나 문화 강좌 등을 보완하며, 학생들의 안목을 길러 창의적인 공학인으로 양성하고자 했다. 세계화 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품성과 창조적 능력을 지닌 전문인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고 자기혁신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고의 창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한기대는 지난 2014년에 제1회에서 제60회까지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휴먼아카데미 강연 자료집 출간함으로써 한기대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 휴먼아카데미 특강에 대한 과거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휴먼아카데미 강연자료집 중에서)

3. 능동적·협동적 학습: “팀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능동적·협동적 학습은 대학생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및 과제 수행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다. 개인적인 학습 참여활동, 교우와 함께 이루어지는 협동학습 정도를 보여준다. 능동적·협동적

활동에 대한 K-NSSE 설문 결과를 보면, 한기대가 전체대학 및 ACE 대학과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해도 모든 학년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능동적·협동적 활동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K-NSSE : 자료 능동적·협동적 활동 영역

	한기대 (n=400)		ACE(25개교) (n=9,459)		전체(54개교) (n=18,257)	
	M	SD	M	SD	M	SD
1학년(n=32)	11.3	2.7	10.9	2.5	10.6	2.5
2학년(n=99)	12.3	2.3	11.1	2.6	11.0	2.6
3학년(n=132)	12.2	2.3	11.6	2.6	11.5	2.7
4학년(n=137)	12.8	2.1	11.6	2.7	11.5	2.8
전체	12.4	2.3	11.3	2.6	11.1	2.7

출처: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3). 2013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기대 학생의 지적 활동이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한기대 구성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한기대 수업이 대부분 학생들의 팀별 학습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공대의 특성상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이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협동적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졸업 작품도 학생 혼자 내는 것이 아닌 팀을 이루어 내도록 하여 학생들의 협동 학습을 이끌어내고 있다.

가. 팀별 학습활동 및 토론식 수업 강조

학생과의 인터뷰에서 독서와 토론 과목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고, 시사문제까지 다룸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예로, 교육사회 수업은 토론식 강의로 운영되었고, 수업 과제 중 하나가 유명인사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것이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조끼리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창글, 창공 다. 그리고 막 조끼리 회의 하고 모이고 그리고 조끼리 발표하고 그런 게 재밌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창글이랑 창공이 제일 좋아요. 뭐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거 내고, 그런 거 설계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레고 로봇도 하고. 공학설계에서 레고 로봇대회도 아마 애들 나가고 싶은 애들 내보냈을 거예요.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학년 학생 C)

독서와 토론이라는, 교과목이 있었는데, 교과목 자체가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인 한데, 그냥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사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좀 폭이 많이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산업경영학부 2학년 학생 E)

HRD 관련 과목의 수업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고, 관심 있는 기업을 조사하고, 기업의 관련부서 담당자를 인터뷰해서 이를 정리해서 팀별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강좌의 절반정도는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토론, 실습, 발표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HRD 관련 교과목들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업 같은 데서는, 저도 굉장히 수업을 프랙티컬하게 하기는 하는데, 기업 내 교육을 하는데 저는 기업을 아예 선정 해가지고 그 기업의 인재상, 뭐 인사제도, 교육제도, 교육체계 이런 것을 다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찾아서 오라고 하거든요? 찾아서 오고 개네들 또 원하는 애들끼리 그룹핑을 시켜줘요. 원하는 회사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제가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홈페이지 은거 다 찾아서 보고, 기업의 인재상 같은 거 다 보고 그리고 아 내가 생각했던 기업과 지금 보니까 좀 이런 괴리감이 있더라 이런 내용을 쪽 적은 것을 보면 아이들이 진짜 충실히 하는구나. 그리고 그룹핑을 시켜서 저는 실재 그쪽에 가서 담당자들 컨택 해서 인터뷰를 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든 하여튼, 요즘 기업들 요새 보안들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게 안되면 다른 차선택으로라도 인터뷰해서 오고 그런 내용들 가져와서 또 하고, 저희가 과제 같은 거 또 뭐랄까요? 예를 들어 HRD 개론 같은 경우에는 한 직무의 직무를 분석해 와라. 이런 과제를 줘요. 직무를 분석해 와서 발표하고 그래요 저희는……. (HRD 부센터장)

그래서 강의, 강의보다 토론, 실습하고 팀 과제. 저희는 거의 보면 개인과제, 팀 과제, 그 다음에 수업의 형태도, 저 같은 경우도 강의, 토론, 실습, 팀 과제 이런 것 들 같이 묶어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강의하는 비율이 높긴 하죠. 제가 강의하는 게 한 5, 60%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0%정도. 나머지 40%정도는 토론하고, 실습하고. 뭐 교수님들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희 HRD쪽의 교수님들은 거의 다 그런 포션 정도로 하세요. (HRD 부센터장)

전공교과의 수업사례를 보면, 과목의 특성상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개념 등은 강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이 교수에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과 1:1 면담을 진행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익명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고 있음). 기말에 발표하는 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2주에 한번 정도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학생평가도 팀별 시험을 시도하고 있는데, 30분전 미리 시험문제(문제의 난이도가 다름, 상, 중, 하)를 제시하고, 팀원들이 각자 문제를 선택해서 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협력뿐 아니라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많이 하세요. 근데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하면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한 학기 동안 걸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제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회사에 나가서 하는 일들도 결국은 연 단위 프로젝트가 됐건 몇 개월까지가 됐던 결국 그런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팀 의사소통이라든지 학생들이 혼자 하면 잘하는 것들이 많은데 팀으로 하면 되게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좀 개방형 문제죠. 오픈되고 답이 없는 것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던져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또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됐던 간에 적어도 어떤 일부 실습이 있는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 대부분 프로젝트를 많이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기본적인 그 기술 같은 것을 운영, 적용해가지고 간단하게나마 뭘 만들어서 돌아가는 걸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죠.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런 형태로 하고 그걸 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 끝날 때 발표를 하죠 거기까지 하면 제가 볼 때 학생들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평교수 A)

전 일단 산업경영학부 학생이라서, 앞에서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실습 저희가 따로 없고, 저희는 주로 이론 위주로 하지만, 주로 팀 프로젝트가 저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론 강의 수업이어도? 중간 기말 시험뿐 아니라, 따로 팀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토론, 발표 수업이라고 그러죠? 중간 중간에 레포트를 작성하는 거, 시간도 많이 내주고. 학생들이, 그니까 발표 능력이나 PPT능력 이런 자체는 굉장히 높거든요. (산업경영학부 2학년 학생 E)

교과과정에 팀 프로젝트 이외에도, 여기 1층에 있는 시그마센터에서도, 그런, 팀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수상에 따라서도, 총장님 상도 수여가 되고, 그 다음에 상금도 수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같이 협동력 같은걸? 창의성 개발?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4학년 학생 F)

저희가 배우는 과목들이 팀프로젝트가 하나씩 다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인간 관계가 더 형성이 되구요, 회사에서는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목 모든 과목이 다 그러니까 그런게 익숙해져요. 교우관계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쌓이고 도전하게 되고, 교수님들이 가르치다가 전문 강사가 이 일을 현장에서 하는 사람을 시간강사로 불러서 배우게 해주고요. 한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두 세 사람에게 배우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3학년 학생 G)

산학연계 강좌도 지원하고 있어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에 활용할 수 있고, 초빙에 대한 비용도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 팀으로 졸업 작품 준비 및 발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기대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서는 졸업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졸업 작품은 Lab에서 팀을 만들어서 과제를 정하게 된다. 지도교수의 도움 아래 졸업 작품을 준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팀원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준비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인터뷰에서 몇

몇 학생들은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발표력, 리더십, 협력 등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답을 준 반면, 몇몇 학생들은 이것이 자기만의 공부를 방해하기도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연구의 시작 작품의 하나 만들고 졸업하기 때문에 3학년 때 지도교수하고 그 연구에 대한 미팅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지도교수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수강신청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활에 대해서 3학년부터는 자기 연구에 대해 뭐 연구란 표현이 너무 거창할 수 있는데 작품 만들 거에 대한 게 지도교수하고 미팅이 시작되고 그래서 3학년 1, 2학기 4학년 1, 2학기 가면서 계속 완성시켜 나가고 3학년 때는 뭐 자료 수집부터 개인 공부가 될 수도 있고, 4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발표하기 까지 진행이 되구요 (4학년 학생 H)

다. 학생의 협력학습 및 자극

실업계고 출신 학생들은 수학, 영어 등을 따라가기 어렵고, 인문계 출신 학생들은 기계, 프로그램 응용 등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 간의 협력이 잘 되어, 서로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어 이러한 갭이 잘 극복되고 있다고 학생들이 평가하고 있다.

실무적인 강의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조교나, 이제, 그런 실습 연구원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고, 또 실업계에서 알고 있던 학생들이 서로 도와주고, 또 인문계열 쪽들 강의를 듣다 보면, 실업계 애들이 모르는 건 인문계 애들이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배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플러스 되가는. (4학년 학생 F)

산경학부도 공대 못지않게 팀프로젝트가 되게 많거든요. 마케팅 수업 이런 것들도 있고 경영학원론이나 기업분석도 되게 많고. 발표도 되게 많이 해요. 한 과목에 한 건씩은 꼭 있어요. 팀프로젝트가. 그럼 거의 어색한 애들 보다는 맘 맞고... 처음에 조사를 하거든요. 뒤에 관심이 있는지. ‘경영’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계 관심 있는 애들이 있고, 마케팅 관심 있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위주로 팀을 구성하다 보면은 말도 많이 통하고 그런 거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면 성과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팀

프로젝트 2개 끝나고 왔는데, 하나는 진짜 어색하고, 좀 모임에도 재미가 없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좀 기대치보다 낮았고, 다른 과목은 되게 잘한 걸로 생각해요. (산업경영학부 4학년 학생 B)

수업의 프로젝트, 팀 과제 외에도 한기대 학생들은 많은 공모전에 공모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입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전에는 개인이 나가기도 하지만, 큰 프로젝트가 많고, 이 같은 경우에는 팀을 이루어 준비하고, 때로는 교수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에 보시면 입·수상, 수상 많잖아요. 그럼 자극되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작다보니까 일일이 ‘누구? 어, 나 재 아는데... 재 저거 했어? 나도 공모전 해봐야지.’ 이런 자극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좁으니까 두 다리 건너면 다 알거든요. 거의 그런 자극도 많이 되고... (4학년 학생 H)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지도학생을 떠나서 그냥 우리 부과학생들이면 다 그렇게 오픈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올해 같은 경우는 2학년 한 2학년 1명 3학년 1명 대학원생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또 뭐 외부 대회에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내외 대회 하라고 그러면 팀을 꾸려서 오기도 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한 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대회가 있다 네가 이런걸 하면 잘할 수 있을 거 같다 해서 꾸려서 이렇게 지도를 별도로 하기도 하죠. 그런 데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일부 몇몇 대회는 아 이거 하면 진짜 많이 배울 수 있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추천해서 그것도 지도하면 힘들긴 한데...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평교수 A)

4. 교우관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교우관계는 대학생활 및 학업과 관련하여 친구 및 교내외 구성원과 행하는 지적, 사회적 교류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인 교류활동의 정도와 교우 간 느끼는 심리적 친밀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우관계에 대한 K-NSSE 설문 결과를 보면, 한기대가 전체대학 및 ACE 대학과 비교할 때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해도 모든 학년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교우관계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교우관계에 대한 점수가 약간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 K-NSSE 자료: 교우관계 영역

	한기대 (n=400)		ACE(25개교) (n=9,459)		전체(54개교) (n=18,257)	
	M	SD	M	SD	M	SD
1학년(n=32)	10.8	3.5	10.6	2.8	10.5	2.8
2학년(n=99)	10.9	2.8	10.8	2.9	10.6	2.9
3학년(n=132)	11.2	3.1	11.0	3.1	10.7	3.1
4학년(n=137)	11.7	2.9	11.0	3.1	10.9	3.1
전체	11.3	3.0	10.8	3.0	10.7	3.0

출처: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3). 2013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기대 학생의 교우관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한기대 구성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한기대 학생들은 학교의 지리적 특성과 작은 학교 규모로 인해 우리, 가족이라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동아리 활동에도 많은 학생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의식 교류

학생 절반이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산 독서토론클럽에 참여하여 한 학기에 2~3권 정도의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학생에 한해 참여하고 있다. 독서토론클럽은 10명 정도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책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외도 약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의 위치상 교내 학생들 간의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엔 이제, 동아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학부별 동아리도 있고, 이제 막, 각 과마다 동아리들이 있는데, 동아리들에게 가입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컴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푸(?)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부 애들이 아무래도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 쪽 선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조언을 해주고, 또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그, 해당 분야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많이 조언 받고, 또 친해지면서 대학 적응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 성격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아리 제도도 잘 돼 있고(산업경영학부 2학년 학생 E)

그게 다산에서 주최하는 건데.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룹이 자기들이 읽고 싶은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읽고 그 그룹끼리 막 얘기도 하고, 뭐 그 책에 나온 장소로 놀러도 가고. 독서토론클럽이요. 10명이 한 팀이 같은 책 읽고 만나서, 한 학기에 두 권 세 권 정도 읽어요(전기전자통신공학부 1학년 학생 C)

나. 서로 도와주는 문화

특성화고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 후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 또한 학습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할 뿐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대화 및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학사경고자의 경우, 학교나 교수의 관리뿐 아니라 주변의 친구나 선배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또한, 친밀한 교우관계가 학습으로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팀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기대 학생들에게는 공동체 ‘우리’라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사람 사이에 친밀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소규모 학교라는 점도 있고(4학년 학생 H)

……’KUT PRIDGE’ 라는 말이 있어요. 코리아텍인데, 예전에는 KUT였어요. 그래서 ‘KUT PRIDGE’라고 해서 아이들끼리도 우리는 ‘KUT PRIDGE’를 가져야 한다면서 막……. PRIDGE를 가지자고, ‘한기인’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기인’(산업경영학부 4학년 학생 B)

저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진짜 그건 있는 거 같아요. 되게 서로 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도 있고, 신뢰감도 있고. 왜냐하면 거의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붙어있으니까 기숙사 생활하면 친구랑. 그런 거 보면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괜찮은 거 같아요(1학년 학생 I)

5. 교수-학생 관계 : “중요성과 현실의 조화”

교수와 학생 교류는 수업, 진로준비,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수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류의 정도를 보여주는 요인이다. 교수와 학생 교류에 대한 K-NSSE 설문 결과를 보면, 한기대가 전체대학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었고, ACE 대학과 비교할 때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하면, 1학년과 4학년이 다른 대학에 비해 교수와 학생교류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학년과 3학년은 상대적으로 교수와 학생 교류 점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K-NSSE 자료: 교수와의 교류 영역

	한기대 (n=400)		ACE(25개교) (n=9,459)		전체(54개교) (n=18,257)	
	M	SD	M	SD	M	SD
1학년(n=32)	14.0	4.3	13.6	4.0	13.5	3.9
2학년(n=99)	12.8	4.3	13.7	4.3	13.7	4.2
3학년(n=132)	13.9	4.3	14.3	4.5	14.0	4.5
4학년(n=137)	14.6	4.6	14.4	4.6	14.3	4.6
전체	13.9	4.5	14.0	4.3	13.9	4.3

출처: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3). 2013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는 한기대의 지도 교수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입생을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도를 못 받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적은 반면, 2학

년은 한기대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학년이라는 의견과 일맥상통한 결과였다.

가. Lab 중심의 전공 교육으로 지도교수와의 유대 형성

3,4학년은 Lab 중심의 전공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지도교수와 정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수시로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랩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추후지도가 가능하고, 졸업 후에도 랩 중심으로 모임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학년부터 Lab실을 운영함으로써 소속감이 높다. Lab실은 주로 한 학년에 6-8명 즉 3,4학년 약 15명 내외가 함께 실제적인 액티비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졸업생들과 미팅을 하거든요. 한 번은 스승의 날 전후에 졸업생들과 미팅, 하나는 연말에 이렇게 하는데 졸업생들 거의 다 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보면 대학원생들이 교수님 찾아 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대학원 때 그랬는데 학부생들이 그런 데 참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중략 랩 단위로 선후배 간, 지도교수하고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대학에 찾아보면, 진짜 거의 유일한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고 그렇거든요. (입학처장)

교수님이 술 먹자고 하시는데요. 교수님들이 어디 놀러가자고 하시고요. 개학하자마자 교수님 빙부상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 것도 막 부르시구요. 수업시간에 수업 말고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구요. 오늘도 철근 콘크리트 강의를 들었는데 1시간은 수업을 하시고 3-40분은 대기업 경기가 어떻고 강소기업을 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무조건 사업을 차려야 한다라던가 그런 이야기해주시고, 요즘 유망한 기술력이 뭔지 이런거도 알려주시고.... (3학년 학생 G)

지도교수님은 약간 좀 자주 드나드시고 한두 명씩.. 그러니까 두세 명씩 학생들 그룹 지어서 자주 그룹 면담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3학년 이후에 랩 배정이 나고부터는 상호작용이 활발한데... (4학년 학생 H)

일단 랩의 소속원이 되면 그냥 그런 프로젝트를 다 그러니까 랩마다 그런

프로젝트를 다 주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생들끼리 잘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공모전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졸업작품이 됐건 공모전이 됐건 그것을 위한 프로젝트를 짜서 뭔가 실물을 만들거나 그 외에는 또 그냥 스터디룸처럼 드나들면서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공부를 하는 장소로....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학년 학생 D)

한 학기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모임 가지면서 친목도모. 교수님들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 다른 교수님들도 한 번은, 못해도 한 번은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너는 지금 뭘 하고 지내느냐’ 아니면 취업한 선배님들 와서 얘기해주고 그런 걸.... (산업경영학부 4학년 학생 B)

나. 온도 차이가 있는 1,2학년 지도교수제

학생들은 1,2학년 지도교수와 3,4학년 지도교수의 친밀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이 판단하기에 1,2학년 때 지도교수와의 유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2학년의 지도가 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 현재 1,2학년의 학생들은 지도교수와는 정기면담이 1~2회 정도 있고, 상담내용은 학사종합서비스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1,2학년의 학생들의 경우는 지도교수에 따라 교수와 학생간의 교류에서 온도 차이가 있다.

1, 2학년도 지도교수가 정해져 있지만 3, 4학년처럼 지도학생에 대한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양과목으로 ‘대학생활과 비전’이 있고 16중에서 4주는 전공교수들이 들어가서 지도를 하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학기에 12명 정도를 지도하고, 이슈가 있거나, 학생이 요청할 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도교수제가 커버하고 있는 못하는 영역들은 교양강좌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생활과 비전’, ‘미래설계와 생애탐색’ 등의 과목을 필수로 듣도록 하고 있다. 3,4학년에 focus되어 있어, 1,2학년은 약간 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년이다. 교수 한 명당 23명 정도를 맡다보니 지도의 한계가 있다. 전공 및 지도교수 확정 전에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학교에서 여러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기획처장)

1, 2학년은 교양과목 위주로 하다 보니깐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저희 전공 교수님들하고 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3학년 때부터 많이 있는 거죠. 그러

다 보니깐 1, 2학년 때 전공교수님들이 1, 2학년 학생들하고 터치가 잘 안 되니깐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애들이 어떤 경력개발이라든지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응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학교 내에 보면 1학년 애들, 1, 2학년 애들 탈락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백들을 교양학부라든지 다른 과의 교수님들이 1, 2학년들을 전담해서 그러면 그때 좀 매칭을 해서 좀 해주자.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좀 미안한 것은 애들한테 너무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교수님들마다 편차가 있으신데 어떤 교수님들은 되게 잘 하시고, 어떤 교수님들은 뭐 바쁘니깐 소홀히 하시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런 것을 매치를 해서 어떤 뭐랄까요 아이들 학생 지도를 해보자 그런 취지인 거죠. (HRD 부센터장)

1학년들과 어떤 지도교수하고의 어떤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우리는 이제 대학생활과 비전이라는 과목을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학교 적응에 대한 부분이 있구요 학교의 예를 들면 하다못해 장학금 신청 어떻게 하는 거고 학교에 어떤 제도가 있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중에서 한 학기에 4번을 전공교수하고 이렇게 가서 각 전공에 가서 랩에 대한 걸 투어를 한다 라든지 지도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 걸 본다 라든지 이런 걸 각 지도교수님하고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런 시간이 주로 학생들과 만나는 물론 이제 1학년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있으면 수업 내에 만나는 거고 그거 외에 지도교수 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 과목에서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평교수 A)

모든 학생이 특히 제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은 필수로 저랑 1대1 면담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면담을 해야 그 수업 참여도의 점수를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저와의 면담을 수업 참여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평교수 A)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약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약간 그건 있지만, 그래도 많아요. 막 교수님들이 밥도 사주시면서, 이렇게 학생들 데려가서 밥이랑 커피 같은 거 사주시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물리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리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몇몇 학생들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학생들 데리고 가주셔서 자장면도 사주시면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지만 너무 여기서 좌절하지 말라고 언젠가 너네는 반드시 크게 성공할 날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자장면 사주시면서.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학년 학생 C)

6. 지원적 대학환경 : “학생중심의 책임지는 지원”

지원적 대학환경은 대학이 대학생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와 대학생이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성장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요인이다. 지원적 대학환경에 대한 K-NSSE 설문 결과를 보면, 한기대가 전체대학 및 ACE 대학과 비교할 때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해도 모든 학년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지원적 대학환경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지원적 대학환경에 대한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 K-NSSE 자료: 지원적 대학 환경 영역

	한기대 (n=400)		ACE(25개교) (n=9,459)		전체(54개교) (n=18,257)	
	M	SD	M	SD	M	SD
1학년(n=32)	10.0	2.0	9.2	2.4	9.0	2.4
2학년(n=99)	9.8	2.5	8.9	2.5	8.6	2.5
3학년(n=132)	9.7	2.4	8.8	2.6	8.4	2.7
4학년(n=137)	9.5	2.7	8.6	2.7	8.4	2.7
전체	9.7	2.5	8.9	2.5	8.6	2.6

출처: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3). 2013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터뷰를 통해서 한기대에서는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밀착된 학생관리, 다양한 학생지원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다양한 학생복지 환경 조성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복지시설이 좋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 생활관(기숙사)의 수용인원도 많고, 학교급식도 비용 대비 질이 높고, 저렴한 커피값 등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등록금이 적은 편이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존재한다.

전교생 중 400명이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다.

학생들한테 복지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렴한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원한다면 언제든지 실습실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실습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 또한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제작할 때,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라서, 저희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많은 거 같습니다. (4학년 학생 F)

학교의 위치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대부분의 학내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기숙사 수용률이 70% 가까이 되고, 주변 원룸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 조별 과제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실험실도 24시간 개방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사실 공부밖에 할 것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또한, 어학향상 프로그램, 교내세미나, 해외 인턴, 교환학생제도, 장학금 등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어학 향상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저런 세미나를 되게 다니다 보면 이런 교내 세미나, 학생들 교내 세미나가 많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구요. 해외 인턴이나 교환학생들 선택폭도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링크사업단이나, 또 특성화 사업단 등이 들어오고 나서,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고 생각하고요. (4학년 학생 H)

나. 학생의 학습능력과 기초과학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한기대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조인재개발단은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학습법 지

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 높은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높이며, 학내 타 기관(부서)의 학생지원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위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POBU(포부 - We will **pat on the back** for you(**U**))의 알파벳을 조합으로 영문 의미는 “당신을 격려(칭찬, 축복)하다, 당신의 등을 토닥거리다”이며, 한글 의미는 “포부(匏部):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을 뜻한다. 이를 조합하여 당신의 포부를 격려(칭찬, 축복)하기 위해 창조인재교육개발단이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POBU를 통해서 한기대는 학생들이 자기이해를 통한 강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효과적인 학습법을 통하여 진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학점이 안 좋은 학생은 MSC교육센터에서 기초과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담진로센터나 기숙사에서 부적응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학사경고자의 경우 상담센터나 지도교수와 상담 후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학생을 위한 책임 서비스

직원만족도가 높았고, 직원들 대부분이 학생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와준다고 평가하였다.

직원 선생님들의 서비스의 질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맡아주시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장학금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집안 사정이 별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서, 장학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교내에 식목월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도 제가, 식목월 장학금이라는 게 100%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장학금을 신청을 할라고 했는데, 그 교외 장학담당 선생님께서, 어느 장학금을 신청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장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신청과정이나 이런, 신청서 작성하는 법도, 자세하게 설명 해주셔서, 그래서, 장학금 수혜 한 경우도 있고, 잘해주시는 거 같습

니다. (4학년 학생 J)

교직원들과의 관계? 그런데 제가 만나봤자 과사에 있는 교직원, 수강 신청할 때 학사팀에 있는 교직원 말고는 못 만나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괜찮죠. 많이 말을 하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상담 같은 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사상담이나 학점 제가 2,3를 몰아서 듣는다거나 졸업 못하는 상황에 걸리면 잘 해주시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토익도 장학금도 활성화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면 되게 잘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산업경영학부 4학년 학생 B)

라. 밀착된 학생 관리: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진로상담센터에서는 진로상담검사(MBTI 등) 등을 실시하여 이를 분석 후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다. 검사 후 학생들을 걸러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 검사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다시 검사,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들은 추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5-6회 정도를 상담하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특별관리학생(가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 등)도 있는데 한 부모학생,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생활비를 벌다보면 성적이 떨어지고, 결과 중도탈락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짐으로 신문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런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습태도가 나쁜 학생들에 대한 학교나 교수의 관심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한기대 중도탈락률은 2.9%로 낮은 편이다. 전공부적응자에 대해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진로상담센터가 있어요. 진로상담센터에서 처음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진로상담센터에서 처음에 1학년 애들 왔었을 때 아이들이 부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데, 첫 번째는 전공이 이제 문과였다 이과 온 애들, 이과에서 문과 온 애들, 특히 문과에서 이과로 온 애들 이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학력을 위해서 방학 때 들어오기 전에 기초학력 공부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개네 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갑자기 못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기

초학력 공부도 시켜줘요. 수학 과외나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딱 들어오면, 저희가 처음에 대학생활과 비전이라는 교과목을 해요 1학년 전부다. (HRD 부센터장)

저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약간 공고생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따로 챙겨주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구요. 전화가 와서 면담을 하자 그래서 학교생활 힘든 거 있냐. 왜냐하면 공고 애들은 적응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학교에서 신경을 써주고...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학년 학생 C)

IV. 한국기술교육대 학부교육의 성공요인

앞에서 한국기술교육대 학부교육의 우수한 모습을 학업적 도전, 지적 활동, 능동적-협동적 학습, 교우관계, 교수와 교류, 지원적 대학 환경 등 6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기대가 우수한 학부교육을 실현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기대 학부교육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성공적인 대학 이미지 메이킹 : ‘취업’, 지속적인 위기관리, 교수들의 헌신과 열정, 현장중심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공동체 문화, 성과중심의 문화 등의 여섯 측면에서 주요 특징들이 나타났다.

1. 성공적인 대학 이미지 메이킹 : ‘취업’

가. 졸업하면 취업은 된다: "한기대는 공고생들의 서울대다."

학생들이 한기대를 선택한 동기를 물어보면 부모나 주변에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 추천을 받아서 입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기대는 정문에 들어서면 커다란 프랭카드에 ‘2014년 취업률 85.9% 전국 1위! 한국기술교육대(8.29 교육부 발표)’라고 쓰여있다.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취업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년 평균 82.4%로 전국 4년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률만 높은 것이 아니고, 취업의 질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 취업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약 14%, 중견 중소기업으로 40%로 정도 진출하고 있다. 졸업생이 약 750명인데 100명 정도는 외국인 학생과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이고, 650명중에서 삼성그룹만 102명이 취업을 했다.

우리 애들이 85%의 취업률을 올해 달성을 했는데 사실 70%까지는 우리

애들 정도 역량이면 다 가요. 제가 봐서는 10% 정도를 취업에서 서포트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마지막 5%는 학부와 지도교수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IPP 센터장)

한기대는 전문계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대를 로망으로 생각하듯이 한기대에 입학하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만큼 취업률이 높고, 이미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한기대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으로 선망을 받고 있다. (학생처장)

저희들 외부 강사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고, 착해요.” 딱 저희들 학생 말 표현 자체가 그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끌어 올리는 게 근성.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세상 못 사니까.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취업이라는 형태에서 우리 교육이 취업해라 취업해라 하지는 않지만 취업을 하는 형태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교육 과정을 거기가 끌고 가죠. 그런데 교육 과정이 취업 때문에 변질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변질된 건 없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학생처장)

저는 이 학교를 잘 몰랐었거든요. 고3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었어요. 인문쪽, 공대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공대 인식이 강해서 저는 문과 쪽이었으니까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보다보니까 노동부 산하에 있는 대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리 대학원을 오시려다가 떨어지셨더라구요, 전기 쪽으로. 아빠가 ‘거기 좋다.’고... ‘그런데 인문과는 없을걸?’ 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빠, 있더라구요.’해서 ‘산업경영’이라는 과를 알게 되고, 다른 학교의 경영학과랑 여기에 있는 경영학과랑 비교했을 때, 실무 위주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인터넷 뉴스로밖에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고 3때. 보면 취업률도 높고 노동부 산하에 있다. 메리트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산업경영학과 4학년 학생)

IPP제도는 4학년 2학기 학생들이 채용 연계형으로 기업에 나가게 되고, 기업은 학생을 채용 연계형으로 받고서 마음에 안 들면 채용을 안 하고, 학생도 입사를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검증을 하고서 채용을 하니 만족도가 높은 거고 채용을 안 해도 기업은 부담이 없다. 보통 채용 연계형으로 나가는 비율은 보통 한 72% 정도인데, 학생들이 채용으로 연계

되고 있다. 2013년도에는 42명이 채용 연계형으로 나갔는데 그 중에서 31명이 해당 기업에 취업이 되었다.

여기 되게 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혀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병천이라는 안에서... 그래서 좀 답답했었는데 3학년 2학기 때 딱 어디 좀 나가고 싶은거예요. 뭐 인턴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공모전 같은 건 했었는데 한정적이고, 뭔가 학교도 다니면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걸 IPP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회사 돌아다니는, 돌아가는 조직에 속한다는 소속감도 되게 컸고, 이게 콘티넨탈 저희 회사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턴한테 주어진 업무가 잡일이 아니었어요.(산업경영학과 4학년 학생)

나. 취업의 질이 높은 대학: 높은 전공적합도

한기대는 취업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질도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공적합도도 강조하고 있다. 한기대의 취업에서 전공적합도는 약 89%를 보이고 있다. 한기대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단순히 높은 것보다 전공적합도가 더 높은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개네들이 얼마나 전공을 살려서 가느냐 하는 부분들. 저희가 그걸 전공 적합도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교육부가 그런 거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저희가 전공 적합도가 89% 정도 전공 적합도를 찾아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학생들의 취업률이 단순히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IPP 센터장)

2. 한기대의 비밀 : ‘지속적인 위기의식’

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줄타기’의 태생적인 어려움

한기대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출연하여 설립된

독특한 탄생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사립대학으로 분류된다. 그러면서도 매년 일정금액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점은 한기대가 사립대학이지만 일정 부분 고용노동부의 정책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한기대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예산의 약 80%를 받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존립의 정체성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일반인들이 대학에 요구하는 측면까지 만족을 시켜야 하는 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양면성이 있을 때가 있다. 한기대는 태생적인 어려움으로 양쪽 측면을 모두 수용하려고 고민을 해야 한다. 즉 정부정책의 수용과 대학의 사회적 요구와의 균형을 잡고 대학운영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가 상치될 때가 대학으로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삼성 전자를 너네가 100명 가는 걸 왜 너희가 자랑하냐. 입시 성적 올라가는 걸 자랑하지 마라. 입시 성적하고 무슨 상관이나. 너네들은 평범한 애들 데려다가 중견기업, 중소기업 많이 보내서 우리나라에 위크한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 서울대 연고대 뭐 출신들이 다 삼성 전자 가고 하는데 왜 한기대까지 삼성 전자나 대기업을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결사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있죠 그런 것들.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만족하는 게 제일 어려움이에요....너네가 일반대학화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화를 지향할 하면 고용부가 돈 대출 이유가 없대는거죠. 그런 게 우리의 가장 딜레마예요. (IPP 센터장)

또 일반인을 봐야 되잖아요. 고용부는 뒤에 있는 거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 대학이 고용부가 만든 대학이지만 대학으로서 신입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저희는 항상 그 양면성을 가지고서 외줄타기처럼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이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상치될 때, 그 두 가지가 상치될 때가 대학으로서는 가장 어려움이에요. (IPP 센터장)

나. 대학의 정체성 변화: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대학

한기대는 외부 환경의 영향과 정권 교체 때마다 대학의 정체성에 의해서 많

은 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92년 개교를 한 후, IMF 위기때 직업훈련 교사 1명을 양성하는 데 약 5억 원이 투자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에도 대학의 입장에서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졸업생이 아직 배출이 안 된 상황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정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반문에 때문에 한기대는 대학의 태동과 현실의 괴리에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서 대학의 필요성과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했다. 다시 말해 한기대의 설립 목적이 한기대를 끊임없이 변화하게 만들었다.

저희가 왜 일요일도 나와가지고 반박논리를 했다 했는데, 실제로 시설투자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졸업생이 적은거지 지금 계속 나온다. (FA 교수)

다. 변화지향의 문화: 변화를 통한 생존

한기대는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에 변화가 있어 왔다. 1992년에 개교를 하기 전에 1991년 말에 학교법인은 생겼지만 1988년부터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직업훈련 기관들을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독일하고 일본의 시스템을 합쳐가지고, 직업훈련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일처럼 160학점으로 시작을 했고, 실험 실습을 강조하면서 50%의 실험실습이면서 5시간 실험실습이 1학점일 정도 수업의 강도가 높았다. 1992년에 개교 당시 8개과가 있었는데, 그 8개 과가 기계계열에 4개, 전기전자에 3개, 디자인 공학해서 디자인도 미술학사가 아니라 공학사였다. 1999년부터는 공학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교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대학원도, 1998년에 생겼고, 그리고 재직자 재교육도 1997년에 풀려졌다. 한기대는 항상 긴장감이 있고, 일을 만들고, 변화를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문화, 변화를 시도하는 문화가 있으며, 구성원들도 적응한다.

메카트로닉스 공학부도 2000년에 딱 새로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에 있던, 생산 기계랑, 기계금형 공학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니까 사실은 금형 쪽이나, 생산기계에서, 생산 기계 쪽은,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가공분야, 생산 분야였는데, 그게, 뭐 자동화, 무슨 제업, 요즘에 뭐 반도체 장비,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된 것이, 그니까, 그, 이제, 2000년, 99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정도 됐을 적엔 상당히 그, 그, 그, 하이레벨의 그쪽으로, 나가게 됐고, 학교에선 그 때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어요(FA 교수)

사실 제가 IPP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교수님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교수님들이 왜 애들을 15학점인데, 아, 15학점에 분포를 보면 전공이 9학점이고 HRD가 6학점이에요. 왜냐면 IPP라는 게 현장 나가서 애가 하드 스킬도 배우지만 소프트 스킬도 배운다. 소프트 스킬이 HRD라고 보고 하드 스킬이 전공이라고 보는데 그 9학점을 빼면서 교수님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왜 나가서 개가 뭘 배운다고 여기서 수업을 더 해야지.”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이니까 그냥 내키지 않아도 쫓아와 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은 뭐 많은 교수님들이 동감하시고. (IPP 센터장)

3. 교수들의 ‘헌신과 열정’

가. 교수들의 현장 전문성 강조: 현장경험 활용

한기대는 교수진 구성자체가 현장중심, 실무 중심적이다. 모든 교수가 현장경험을 3-4년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임용 시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교수들의 현장학기제는 3년에 1번 6개월 동안 산업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경험을 갖는다. 기업체에 다녀오면 수업에 대한 내실이 생기고, 여유와 학생입장에서 더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새롭게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는 가르치는 사람이 일단 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교수 채용 시 현장경험을 요구하고 있고, 3년에 한번 현장학기제를 운영하여 교수들이 현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수님들이 또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사실 뭐 장비가 아

무리 좋으면 뭐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저는 좀 많지만, 그래도 3-4년 이상씩은 다 대부분 현장 경험 있는 그런 분들로 채용하기 때문에(기획처장)

교수님들도 사실은 와서 있다 보면 현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한 학기 동안 기업체에 나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자기들도 알게.. 현장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 학기제 플러스 연구 연가 거기에 이제 형태로.. 7년 텀인데, 3년에 한번은 그 쪽, 현장 학기를 보내고.. 7년마다 연구 연가를 보내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기획처장).

나. 밀착된 학습 지도

한기대의 교수들의 학생지도 특징 중에 하나는 지도교수 중심의 Lab실 운영 체제와 IPP 나가기 전에 전공 계열 학기를 운영한다. IPP를 나가는 학생들이 전공 계열 학기를 통해서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도록 한다. IPP를 나가는 학생들도 등록금을 내고 나가고 그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한다. 대신에 전공 계열 학기는 무료로 수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교수들은 여름 방학 때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교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를 갖다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취업 컨설턴트들이 수 없는 몇 백 가지 취업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흉내 못 내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교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거. 그래서 애들 전공 능력이 뛰어난 것. (학생처장).

학생들이 뭐 밤에도 상당히 많아요. 교수님들도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저도 있다 보니까 주로 시험은 시간이 안 나니까 8시 이후에 본다고 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9시에 보면 11시까지, 8시에 보면 10시까지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기획처장).

저희 학교가 졸업 학점도 다른 학교보다 많지만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다른 학교 4년제 대학들이 보통 2,500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 저희는 대략 3,800시간 정도 수업을 하더라고요. (IPP 센터장)

총장님이 오셔서 초면예요, 수업을 줄여라.. 막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들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전보다 안 줄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총장님이 포기를 했죠. 자기 생각을 바꾸자, 미국에 뭐 욕사 있잖아요. 거긴 군사교육도 하고 정규 교육도 하잖아요. 둘 다 잘한다, 거기를 모델로 삼자이래서 자기도 줄이자 뭐 이런 얘기 안하고 열심히 더 해야 한다. 이렇게 기조를 바꿨어요. (기획처장).

다. 끈끈한 동료문화(모델링)

젊은 교수들이 그 만큼 열정을 갖고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지만, 위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잘 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승진과 연구에 대한 부담이 있어 학교를 위해서 보고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하려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 정신적 조언을 받고 함께 하려는 문화에 물들게 된다.

4.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가. 전공교육의 출발과 종결은 Lab 실 중심의 교육

학교 시스템은 학부로 들어오면 2학년 때 전공을 나누고 3학년 때 지도교수가 정해지고 지도교수의 Lab실에 배정된다. Lab실은 다른 대학의 대학원 시스템 같이 되어 있어서 도제식이 된다.

교수님 랩으로 배정이 되요. 도제식이예요, 완전히. 그 때부터 개네들끼리 딱 들어와서 하는게 뭐냐면 그 방에서 수업 끝나면 항시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뭐 가는.. 배정받은 애들이 3학년 때 팀을 구성을 해요. 3-4명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아이디어 발상 회의를 많이 하죠.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향후 졸업 작품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팀을 꾸려서 졸업 작품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랩에서 3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4학년도 6-7명, 3학년

도 6-7명, 그니까 뭐 열 몇 명이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도교수는 매주 한번 회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 졸업 작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주차보고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 제가 뭐 보증 받기 전까지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 뭐하고, 다음 주에 뭐할 건지 일정을 짝 다 알아 오고 저는.. 했거든요. 그니까 애들이 발표력이나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해서 4학년 이제 2학기 때 발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기업도 사실은 한 30명 네댓 명이 어떤 프로젝트 하게 되면 모여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든요. 거기서 팀웍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팀하고 없는 팀하고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졸업 작품 하면서 기업에서 이 팀을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스킬을 배우는 것 같아요. (기획처장)

나. 현장실습을 강조하는 제도(IPP제도): “일과 학습의 병행”

많은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한기대로 개교 초부터 현장 실습을 꾸준히 강조 해왔으나 보다 실제적인 현장실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소한 4개월 이상을 하는 미국의 CO-Operative Edu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산학협력 모델이 있는 데,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통 다른 대학들은 4개월에 15학점에서 16학점 주는 데, 그에 맞춘다면 30학점을 줄 수도 있지만 10개월에 15학점으로 한 달에 1.5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6개월 나가면 9학점, 4개월 나가면 6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IPP 나가기 전에 전공 계열 학기를 개설해서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고 IPP를 나가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준비를 시킨다. 전공 계열 학기는 무료로 수강을 하게 되며, 여름 방학 때 수업을 해야 함으로 교수와 학생 모두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IPP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역량과 적성을 파악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4개월 정도 일 해보면 전공이 자기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들은 기업에 나가기 전에 기업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역량을 있어야 하는지를 기업하고 인터뷰한다. 이 과정에서부터 자기에 맞는 기업에 학생들이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서 자기 전공 역량 파악하고 진로선택도 고민해 볼 수 있게 된다.

미국은 1년 나가면 1년 동안 돈을 안 내고 그냥 학점도 안 주고 그냥 나가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재학 연한이 보통 긴 편이고,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남학생의 경우는 군대도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학기를 또는 학년을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4년 학제에 최대 학생들한테 3학년 때 4개월에서 6개월, 4학년 때 4개월 해서 10개월을 내보내면서도 학년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을 저희가 IPP라는 용어로 붙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4학년 때 4개월, 3학년 때 4개월에서 6개월, 총 10개월을 나가요 현장 실습을... (IPP 센터장)

IPP가 정착하기 위해서 애가 기업에 가서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100만원씩이나 주는데. 그니까 거기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이 있잖아요, 그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내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실습이라던가 이런걸 많이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3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능력이 되어서 기업체에 가서 이걸 하라고 하면 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니까 기업체에서 데려 가면서 한 100만원씩 주는 거죠. (기획처장)

다. 아르바이트도 산학협력으로

IPP 제도로 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은 기업으로부터 월 10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기업도 원하는 사람을 채용 때문에 월 100만원 정도를 주게 된다. 학생들은 4개월 정도 나가면 400만원과 학교에서 월 40만원 정도 지원함으로써 대략 56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는 대학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월 140만원을 받게 되지만 현장 실습이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우리 학교는 다음 학기 등록금이 한 250만원 정도니까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하고도 250만원 정도 자기 용돈으로 쓰고 어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IPP 센터장)

4년 학제에 최대 학생들한테 3학년 때 4개월에서 6개월, 4학년 때 4개월 해서 10개월을 내보내면서도 학년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을

저희가 IPP라는 용어로 붙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4학년 때 4개월, 3학년 때 4개월에서 6개월, 총 10개월을 나가요 현장 실습을... (IPP 센터장)

이 모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다른 학교들도 현장 실습 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체계화 시키고 기업이나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IPP 센터장)

라. 산학연계 강의 운영

강의준비는 매 순간 업데이트를 하자는 생각으로 교수내용의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다. 특히 산학연계과정이나 현장실습에 대한 대학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실습 자체를 위해서 대학에서 1년에 약 10억 정도 투자하고 있다. 산학협력 교수도 6명이고 이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몇 억이 들게 된다. 한기대는 전공수업을 현장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4주 이내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주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 친구들이 다 만져보고 나가요. 그니까 기본 개념을 다 아는 거죠. 저도 뭐 이론 수업할 때, 저도 기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쓰던 장비들이 여기 있는 거고. 근데 뭐든지 다 만져보라고 그러구요. 그러고 만약에 고장 나면 우리는 이제 기술 연구원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 한 전공 당 기술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냐면 실습을 지원하는 그런 인력으로 되어있어요...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부 교육은 그렇게 시켜야 해요. (기획처장)

5. 학생의 ‘학습공동체 문화’

가. 학생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한기대는 학생들 간의 유대가 매우 깊다.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하는 속에서

‘우리’라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도 3,4학년 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계 학생들은 실무에 대한 내용을 인문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또 인문계열 쪽들 강의를 듣다 보면, 실업계 학생들이 모르는 건 인문계 학생들이 알려주고 식으로 서로 배워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학교에서는, 여기 학교에서는, 저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학생회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우리 학교는, 친구들 자체가, 보통 대학교 친구는, 평생 가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이익 집단이다, 그냥, 이익,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다, 이런 게 보통 선입견이긴 한데, 그 선입견을, 아예 깨버릴 정도로, 괜찮은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 학교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학교에 잘 적응하는 거 같습니다. (2학년 학생 F).

산경학부도 공대 못지않게 팀프로젝트가 되게 많거든요. 마케팅 수업 이런 것들도 있고 경영학원론이나 기업분석도 되게 많고. 발표도 되게 많이 해요. 한 과목에 한 건씩은 꼭 있어요. 팀프로젝트가. 그럼 거의 어색한 애들 보다는 맘 맞고... 처음에 조사를 하거든요. 뭐에 관심이 있는지. ‘경영’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계 관심 있는 애들이 있고, 마케팅 관심 있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위주로 팀을 구성하다 보면은 말도 많이 통하고 그런 거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면 성과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팀프로젝트 2개 끝나고 왔는데, 하나는 진짜 어색하고, 좀 모임에도 재미가 없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좀 기대치보다 낮았고, 다른 과목은 되게 잘한 걸로 생각해요. (산업경영학과 4학년 학생)

나. 기초학력부터 책임지도

한기대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조직으로 MSC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MSC교육센터는 수학이나 물리 또는 컴퓨터 등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조직이다. MSC교육센터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3,4학년 중에 수학이나 물리 학점 좋은 선배들이 1,2학년 후배들을 1:1로 멘토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 학생들은 MSC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가서 도움을 받고 있다.

수학, 물리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완을 해가지고 그걸 또 장학금으로 이용하죠. 학생들이 멘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멘토를 갖다가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학점을 A 학점 이상 정도, 3학년 이상 되면서. 그러면 그 학생들 멘토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업 들을 사람들은 모집을 해서 분반별로 자기가 편한 시간에 맞춰주고. 그럼 그 공간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처리를 하고 시간당 우리는 장학금으로 멘토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학생처장)

대부분이 좀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보면 학점이 별로 안 좋은. 뭐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MSC교육센터를 만든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성적.. 공학이다 보니까 수학이 딸린다든지 물리 화학 이런 쪽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런 부분을 거의 안하고 온 학생들 때문에 만든 게 MSC교육센터고. 그런 부분은 해결해 주면서...]. (기획처장)

다. 학생들의 적성을 살리는 현장 교육

대학생의 졸업생의 25%가 1년 내에 그만두는데 그 이유가 자기 적성이나 자기가 조직 생활 이런 데에 적응을 못 해서 그만 둔다. 미리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험해보고, 진로를 결정하면 최소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IPP가 단순하게 현장 실습을 길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자기 진로를 한 번 심도 깊게 현장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전공 역량이나 취업 역량을 높이려고 한다.

저렴한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원한다면 언제든지 실습실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실습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 또한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제작할 때,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라서, 저희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많은 거 같습니다. (4학년 학생 B)

6. ‘성과 중심’의 문화

가. 정부시책을 반영한 사업 수행

대학의 미션, 정부시책 등을 적기 반영하는 신규 사업 적극 발굴하고 있다. 듀얼(일-학습 병행), 평생교육(구직자·재직자 온라인직업교육) 등 정부시책을 반영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반영한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입증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정체성 확장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사업 발굴하는 등 정부지원 사업 수행의 당위성을 확보하면서 정부출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재정은 좀 뺄뒀기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학생 1인당 교육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뭐 평가 받고 이럴 때는 보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학교가 학생만 있는게 아니라 특수 업무도 많아요. 능력 개발 교육원이라고 그것도 이 캠퍼스에 있어요. 직업 훈련 교사들 재교육, 양성을 시키는 데거든요. 직업 훈련 그리고 특성화고 선생님들, 폴리텍 교수, 이런 양반들 재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캠퍼스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거기는 공공부문에 있는 그.. 노사 교육 그 다음에 고용 노동부에 관련 재교육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뭐 그 대학원 학생들이.. 이 캠퍼스하고 4 캠퍼스는 사실 정규 대학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텐데 그런 예산까지도 교육부에서 할 때 보면 같이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의외로 보면 재정이 되게 넉넉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기획처장)

나. 성과중심: ‘보여주기’ 위한 노력

정부주도의 각종 경영효율 기제에 대비해서 한기대가 우수한 대학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국정감사, 고용부·기재부·교육부 감사, 기금평가, 경영평가, 청렴도평가 등에서 한기대의 성과를 알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대학의 정체성에서 갖고 있는 지속적인 위기의식 속에서 대학의 운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학이 생

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갈증

한기대는 지난 ACE사업에서 현장실사를 3번이나 받고도 아직까지 ACE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다. ACE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면서도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향후의 인재상의 변화에 맞추어 학교 교육모델도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적으로 명문대 수준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과 인재상 대한 갈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통렬한 반성. 반성과 성찰을 해보자. 그랬을 때 나온 게 우리가 너무 지금 학생들한테 움썅달썅 못하게 시켰다. 그랬더니만 과연 애네들이 기업에 가서 받는 평가가 이런 거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한테 줄여주자. 학교에서의 프레서를 좀 줄여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앞으로의 인재가 창의융합 인재라는데 지금처럼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게 우리 학교 모델의 저는, 물론 그게 과거 20년간은 통했다. 하지만 향후의 인재상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교육 모델도 변해야 한다. 우리도 조금 고급스럽게 가자 이제.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명문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애들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레벨에 올라가지... (IPP 센터장).

지금 저희 학교가 22년 되다보니까 그 때 나간 애들이 지금 부장급 정도 가는데 애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럴까 리더십이라 그럴까? 조직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한 거예요. (IPP 센터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졸업생들이 나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 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잘 하는 게 뭐냐, 부족한 게 뭐냐를 물어보면 우리 애들이 지적하는 게 딱 두 가지더라구요. 리더십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창의성. 그러니까 일은 잘 하는데 시키는 일은 잘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역량들이 필요하잖아요. (IPP 센터장)

그러니까 에이스가 왜 안 되는지.. 맨날 얘기하는 게 중앙일보 교육 뭐 그 잘 시키는 대학 1등이라고 하는데 중앙일보가 잘못됐는지 교육부가 잘못

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 아니 에이스 사업이 뭐 맨날 교육부 관련 해서 1등하니까.. 본인이 이제 뭔가 한번 크게 이야기 할 거다. (기획처장).

이번에 ACE 사업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창의 교육 모델을 가지고 학생들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현장 실무 인력을 길러보겠다 해서 강조를 했는데... (IPP 센터장)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심층적 맥락과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한기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서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직교수, 학과장, 일반교수, 학생, 직원 등 학교의 주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중심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두 차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시설과 여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찰도 실시하였다. 여러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연구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인 영역분석과 주제 분석을 실시하여 한기대 학부교육의 우수성 측면과 성공 요인 측면으로 그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한기대 학부교육의 우수성 측면은 크게 학업적 도전, 지적활동, 능동적-협동적 학습, 교우관계, 교수와 교류, 지원적 대학 환경 등 여섯 영역에서 그 특징들이 도출되었다. 우선, 학업적 도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졸업학점이 150학점으로 ‘많은 학습량’이었으며, 이론과 실습의 비율이 50:50인 ‘실협실습중심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질 높은 졸업관리’를 위해서 졸업작품, 토익 600점 이상, 산업기사이상 자격 취득 등이 요구함으로써 현재 10% 정도의 학생들이 졸업조건에 걸리고 있다. 한기대의 특징인 실천공학자이외에 인적자원개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HRD 관련 학점을 16학점 정도를 모든 학생이 수강하는 ‘HRD 교육’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적 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한기대 교육의 특징 중 하나가 3학년부터 대학원 체제처럼 지도교수의 Lab에 소속되는 ‘Lab 중심의 전공 교육’이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은 최대 10개월까지 현장실습이 가능한 ‘IPP제도’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기초과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MSC교육센터의 튜터제도를 활용하여 수학, 물리, 컴퓨터 등 보충교육을 위한 ‘기초능력 보강 프로그램’과 공학도들에게 부족한 ‘인문학 소양 강화’를 위한 휴먼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학교가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능동적·협동적 학습 영역에서는 한기대의 수업 운영방식인 프로젝트 중심의 ‘팀별 과제 수행과 토론식 수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Lab실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팀별 졸업작품 준비 및 발표’도 팀원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준비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실업계고 출신 학생과 인문계 출신 학생들 간의 상호 도와주는 ‘학생 협력학습 및 자극’은 서로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기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우관계 영역에서는 한기대의 다양하고 동아리가 있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친밀감이 학사경고자나 부족한 학생들을 서로 도와주는 문화인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수와 학생 교류 영역에서는 3, 4학년들은 Lab 중심의 전공 교육으로 ‘함께 하는 지도교수’와의 유대감 형성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전공 교육 활동이 가능하고 졸업 후에도 랩 중심으로 모임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원적 대학환경 영역에서는 한기대의 다양한 학생복지 환경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데, 등록금, 장학금 제도, 생활관(기숙사), 학교급식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학생의 학습능력과 기초과학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창조인재단의 학습법을 위한 POBU 프로그램과 MSC교육센터에서 기초과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직원들의 ‘학생들을 위한 책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진로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함으로써 ‘밀착된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기대 학부교육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성공적인 대학 이미지 메이킹: ‘취업’, 지속적인 위기관리, 교수들의 헌신과 열정, 현장중심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공동체 문화, 성과중심의 문화 등의 여섯 측면에서 주요 특징들이 나타났다. 첫째, 성공적인 대학 이미지 메이킹은 ‘취업’이다. 한기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한기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취업’이라고 할 만큼 취업으로 ‘성공적인 대학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한기대는 취업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질도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공적합도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속적인 위기관리이다. 한기대가 사립대학이지만 예산의 80%를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정책적인 영향을 받아야 하는 ‘줄타기’의 태생적인 딜레마가 있다. 한기대는 외부환경의 영향과 정권 교체 때마다 대학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 이런 위기적 상황 때문에 한기대는 항상 긴장감이 있고, 일을 만들고, 변화를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문화, 변화를 시도하는 문화가 있으며, 구성원들도 적응한다.

셋째, 교수들의 헌신과 열정이다. 한기대는 교수진 구성자체가 현장중심, 실무중심적이다. 모든 교수가 현장경험을 3-4년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임용 시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교수들은 현장학기제를 통해서 3년에 1번씩 6개월 동안 산업체를 방문해서 현장경험을 갖는다. 또한 한기대의 교수들의 학생지도 특징 중에 하나는 지도교수 중심의 Lab실 운영 체제와 IPP 나가기 전에 전공 계열 학기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많은 학습을 기꺼이 지도한다. 이런 모습들을 서로 보고 배우면서 끈끈한 동료문화도 형성하고 있다.

넷째, 현장중심 교육과정이다. 한기대의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전공교육의 출발과 종결은 Lab 실 중심의 전공교육이라는 점과, 현장실습을 강조하는 IPP제도를 통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IPP 제도로 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은 월 140만원을 받게 되지만 현장 실습이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다섯째, 학생의 학습공동체 문화이다. 한기대 학생들은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하는 속에서 ‘우리’라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문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들 간에 서로 상호협력 하는 분위기나 학사경고 등 약간 부족한 학생들도 선후배 또는 친구들 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다. 이러한 원

인은 소규모 대학이라는 점도 있고, 학생들이 졸업과 더불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한 방향으로 정립되어 있 때문으로 보인다.

여섯째, 성과중심의 문화이다. 한기대는 정부에서 예산의 80%를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이지만 반대로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대학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과를 보여주어서 한기대가 우수한 대학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한기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또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하는 바가 서로 상충할 때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데,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위기의식이 대학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지속적인 대학발전을 유도하게 되었다.

한기대는 졸업학점이 150학점으로 학습량이 매우 많으며, 대학원체제와 같은 Lab실 중심의 전공교육과 일과 학습이 연계된 현장연계의 IPP 제도가 가장 인상적인데, 학생들은 3, 4학년 때 이 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성 및 역량 개발과 진로 탐색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한기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밀착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도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학습공동체를 유도하고,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한기대가 추구하는 인상 깊었던 단어는 “학습 협력과 팀워크”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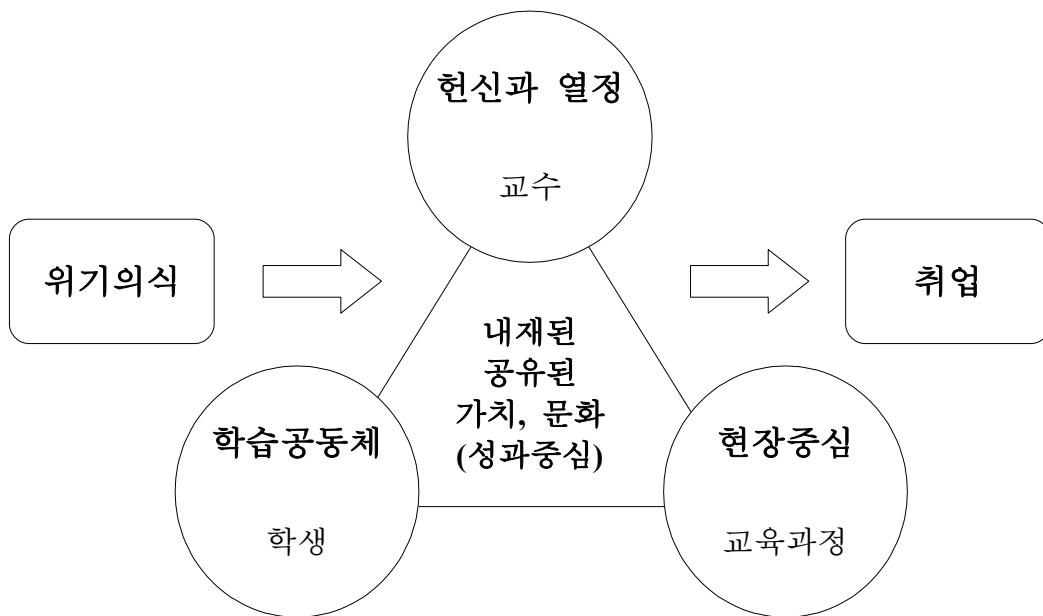
한기대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교육적 성과’을 지향하는 점이다. 학생들의 실력을 최대한 높여서 졸업할 때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능 점수가 2등급대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노동 시장에서 수능 1등급 대의 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기대는 학생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고 학생들의 성장을 강조하지만 지속적으로 취업에 대한 순위를 강조하면서 대학의 이미지를 취업에 두고 있다. 교육 내용도 취업에 유리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한기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물리적인 교육 환경이나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구비하고, 24시간 실습실을 개방하면서 학교교육이나 학생들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등록금과 많은 장학금 제도 그리고 기숙사 시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 한기대의 우수대학으로서 성공 모형

2. 제언

위에서 밝혀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기대의 학부교육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기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기대는 학부 교육을 강조하였고, 대부분의 교수들도 교육에 몰입을 하고 있어 지금과 같이 취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최근 교수들에게 연구를 강조하면서 연구 논문 등에 대한 요구가 지금까지 학부 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헌신과 몰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수들의 업무과중을 초래해서 연구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 등의 심리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교육중심 대학으로서의 한기대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생지도에 있어 1,2학년과 3,4학년 학생의 지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보다 밀착지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지도에 있어서 3,4학년에 focus되어 있어, 1,2학년은 약간 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년이다. 1학년은 학교에 자리매김하는 학년으로, 교양과목 등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있다. 2학년이 가장 케어가 안 되는 학년, 공백기가 있는 학년이다. 전공이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학년이며 남학생들의 군대 문제 등도 있어 지도가 가장 어려운 학년이다. 1,2학년 관리는 전공, 지도교수 확정 전에는 교양학부 교수가 관리하고 있고, 교수 한 명당 지도학생이 많이 지도에 한계가 있다.

셋째, 대학의 인재상에 대한 해결책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이다. 현재 한기대의 졸업생들이 지금 기업에서 중간관리자쯤 되는데 이들이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것이 리더십, 조직 장악력, 창의성이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취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한기대 학생들이 이런 점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에 있는 인사담당자들에게 한기대 학생들에 대해 물어보면 성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가치관이 긍정적이고, 조직 사랑 등이 있으나 목표의식, 방향설정, 계획성,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등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 이 점을 보완해야 한다. 학생들의 창의성 및 리더십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의 높아지는 눈높이와 대학의 정체성간의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 한기대 학생들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중소기업 갔던 학생들도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한기대의 정체성(mission)과는 상충된다. 한기대는 대학경영 측면에서

소규모, 취업 중심 대학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영향을 받고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한다. 이런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거나 사회적 요구까지 반영해야 하는 고충을 갖고 있다.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기자재나 시설에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지원 받는 예산만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눈높이가 높아지면 가는 직장이라든지 선호하는 진로가 달라지고, 선배들의 취업을 보고 그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다섯째, 대학 내의 구성원들 중에서 소외감을 갖고 주변인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기대에 공학사와 경영학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산업경영학과가 경영학사를 받고 있다. 수업료의 차등은 있지만, 산업경영학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공학파트의 학생에 비해 불만도가 높은 편이다. 한기대는 HRD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대학구성원의 HRD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HRD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대학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HRD를 강조하면서도 대학구성원들 특히 직원들의 HRD를 통한 역량개발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 구성원들 중에서 소외되지 않고 대학운영에서 주변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대학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기대의 컨트롤 타워의 정립이 필요하다. 한기대는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곳이 없는 것이 약점이다. 전체를 조정하고 통괄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학부의 소단위의 기능까지 행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져 중앙중심에서 학부별 학사운영의 특화와 업무수행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배상훈 외(2013). 2013년대학 학부교육 결과 성과 분석-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연구보고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 학부교육 실태진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보고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14). ACE사업 계획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15). 휴먼아카데미 강연 자료집

부 록

[부록 1] K-DEEP 프로젝트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소장 변기용 교수)는 대교협의 학부교육 실태조사 연구팀(연구책임자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과 협력하여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연구(K-DEEP Project: The Documenting Effective Educational Practice in Korean Universities)”¹⁾를 수행하고 있다(연구기간 2014~2105)²⁾. 주지하다시피 대교협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협의회’는 이미 2011년부터 “학부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참여 대학들은 그 동안 이 데이터를 학부교육 개선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서베이 조사결과로 얻어진 정량적 데이터(Quantitative Data)는 대학의 평균적 수준과 강/약점을 알려주는 것은 하지만 “어떻게,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우수한 학부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들이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K-DEEP 프로젝트는 정량적 데이터로 알 수 없는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내면적 성공요인 파악과 개선전략 도출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교협의 “학부교육 실태조사 연구”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교육 실태에 대한 ‘종합적 밑그림 파악’ 및 ‘실천적인 개선 전략 도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과 성공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문서화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프로젝트를 가이드하는 기본적 연구 질문들은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과 우수 실천사례는 무엇인가? (2) 학부교육 우수대학들이 성공에 이르게 된 과정과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본

1) K-DEEP 프로젝트는 미국 Indiana University의 NSSE Institute에서 2002-2004년간 수행한 DEEP(Documenting Effective Educational Practice) 프로젝트의 한국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DEEP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의 내용과 DEEP 웹사이트 참조. <http://nsse.iub.edu/html/DEEPOverview.cfm>

2) 1차년도 5개 대학, 2차년도 5개 대학으로 나누어 총 2개년 과제로 수행될 예정이다.

적 연구질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궁극적으로 학부교육 개선에 관심을 가진 대학들이 보다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학부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대학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실천사례와 성공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례연구 참여대학인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도 (1) 당해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 중에서 무엇이 성공적이고 무엇이 성공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성공적이라면 (2) 그 성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특정 시점에 전체적인 학부교육의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적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왜 성공적인지 모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혁의 동력이나 성과가 약화되는 시점에서 개선의 방법을 모르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본 프로젝트의 결과는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및 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에서 발표되고, 토의될 예정이며, 아울러 사례연구 보고서, 학술 논문, 단행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간되어 국내외 학계 및 정부 관계자에게 on/off-line 을 통해 널리 공유될 예정이다.

나. 연구방법

개별 대학이 학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실천전략을 모색할 때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른 우수한 대학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 대학의 교육적 여건이나 조직문화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K-DEEP 프로젝트는 10개 내외의 “학부교육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이들의 특성과 우수한 실천사례를 파악하는 사례연구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연구진이 K-DEEP 프로젝트 참여대학 후보군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3년간의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후보대학은 기본적으로 (1) 서베이가 이루어진 3년간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에 포함된 6개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대학들과 (2) 2011년 대비 2013년 성과가 현저히 향상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우수대학 후보군”을 중심으로 최종 사례연구 대상대학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학들이 본 연구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학 특성들(예컨대 수도권/비수도권, 대규모/중소규모, 종합/특성화 대학, 남녀공학/여대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대학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³⁾.

본 프로젝트의 이론적 배경 (혹은 개념적 분석들)은 “학생 참여(Student Engagement)”라는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학생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널리 알려져 온 바 있으나, 대학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부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학생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어떠한 종류의 학생들의 참여 경험에 자신들이 가진 한정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나 정보는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교협(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⁴⁾은 “학부학생들의 경험”이라는 중요한 고려요인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들의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학생 참여”는 다음의 2가지 핵심적 영역으로 대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과 ‘기타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들’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며, 두 번째는 개별 대학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성공(예컨대, 중도탈락율 감소, 만족도, 질 높은 학습과 졸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특정한 경험들과 성과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1)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배분하고, (2) 교육과정 및 다른 학습기회들을 조직하며, (3) 효과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이 중 특히 두 번째 영역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바로 대학이 의지만 있다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며, 대학의 노력을 통해 대학이 선발한 학생들에게 일정한 “부가 가치(Value-Added Effect)”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Kuh, et. al. 2010)⁵⁾.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도구”는

3) 1차년도인 2014년의 경우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동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2차년도 사례연구 대상 대학들은 2015년 2월 현재 후보 대상들과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4) 대교협(학부교육 실태 진단 조사도구)는 미국 Indiana 대학의 NSSE Institute에서 개발하여 현재까지 북미지역 1,400여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의 Benchmarks 설문 문항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한 조사도구이다.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NSSE Benchmarks의 경우 크게 Academic Challenge,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Student-Faculty Interaction, Enriching Education Experiences, Supportive Campus Environment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도구의 경우 한국적 맥락에서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6개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상훈·김혜정(2012). 대학생의 학습참여 측정 모델의 타당성 검증. 교육행정학연구, 30(1), 503-527”를 참조. NSSE Benchmarks 및 한국의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도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2의 설명과 다음의 NSSE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sse.iub.edu/>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커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학업에 대한 도전; (2) 지적인 활동; (3) 능동적·협동적 학습; (4) 교우 관계; (5) 교수와 학생간의 교류; (6) 지원적 대학 환경.

K-DEEP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도구”에 포함된 상기 6개 영역을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실천사례를 파악하는 개념적 분석틀로 활용한다. 다만 이와 관련 한 가지 언급할 것은,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도구(혹은 NSSE Benchmarks에서 사용된 5개 영역)가 본 프로젝트의 설계 및 후속적 자료수집에 일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바로 본 프로젝트의 관심이 반드시 이러한 6개 영역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될 사례연구는 이러한 개념적 분석틀에 의해 포착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실천전략, 기관의 특성과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상기 6개 영역은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위한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한다.

다. 연구 수행과정 및 자료 수집

연구팀에서는 사례연구 대상대학들을 연구기간 중 대학별로 2~3차례 정도 방문하였다. 현장방문 전 연구진들은 먼저 대상대학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6) 현장 방문기간 동안에는 면담, 포커스 그룹, 참여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대학 구성원들과 토의·점검하였다. 특히 1차 방문후에 연구진들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대학에 대한 “사례연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례연구 보고서간의 일관성과 연구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후속적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차 현장방문의 주된 목적은 추가적 자료수집을 통해 사례연구 대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보다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간보고서에서 기술된 사실의 확인과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진들의 해석의 적절성에 대해서 참여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시각

5) Kuh, et. al. (2010). “Success in College: Creating Conditions That Matter. Jossey-Bass.

6) 연구진에서는 본격적인 사례연구 개시전에 해당대학의 본 프로젝트 참여의지를 확인하고, 총장 및 보직자, 학내 코디네이터 면담 등을 통해 사례연구의 수행 기본방향과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방문을 고려중이다. 이 예비방문을 통해 해당 대학이 산출한 학부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기초자료도 함께 수집할 예정이다.

을 통해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차 현장방문에서는 특히 중간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연구진과 다양한 대학 내부 구성원들간의 소그룹 토론과 면담을 시행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해석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아울러 중간보고서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 우수사례나 이를 가능하게 한 대학의 전략과 조직문화에 대해 연구진들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 축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2차 방문후에 연구진들은 수집된 자료와 참여 연구진들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별대학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대학에 회람하도록 하여, 사실의 확인과 함께 대학 내부적으로 학부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과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도록 노력한 바 있다. 이렇게 참여대학 내부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시각과 통찰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발견사항의 타당화 과정을 거쳐 연구진들은 최종 사례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사례연구 수행의 기본 원칙

첫째, K-DEEP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과 우수 실천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는데 있다. 즉, 연구진의 기본적 관심은 서로 다른 유형의 기관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들이 ‘어떻게 그러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그 성공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물론 연구진들은 우수대학이라고 할지라도 특정한 영역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본 프로젝트의 기본적 포커스는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무엇이, 왜 성공적인가”라는 강점의 발견에 있고 “무엇이 왜 실패했는가”라는 약점의 파악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대학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와 추후 발간될 단행본에서는 사례대학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적 기술(Evaluative Statements)보다는 우수사례에 초점을 둔 묘사적 기술(Descriptive Statements)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K-DEEP 프로젝트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시각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그룹의 구성원(예컨대 총장 등 보직자, 행정가, 교수, 재학생, 졸업생 등)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셋째, K-DEEP 프로젝트는 학생, 교직원 및 다른 학내 구성원들이 실제 대학생활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내부자의 시각에서 사례대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부록 2] 미국 Indiana 대학 NSSE Institute의 DEEP 프로젝트 개요

미국 Indiana University의 NSSE Institute에서 미국 고등교육협의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AAHE)와 협력, 2002년 가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수행한 DEEP(Documenting Effective Educational Practice) 프로젝트의 결과는 각종 학회 및 초청강연, 대학 행정가 워크숍에서의 발표 자료, 논문, 정책문서(Practice Briefs, Policy Briefs 등) 등으로 널리 공유되어 이론적, 실천적으로 미국 대학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바 있다.

DEEP 프로젝트의 결과는 특히 2005년 미국 유수의 고등교육 분야 출판사인 Jossey-Bass와 AAHE에 의해 “Success in College: Creating Conditions That Matter(이하 SSiC)”란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학부 교육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북미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를 일종의 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대학원 고등교육 전공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핵심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DEEP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실천사례와 성공전략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으나, 한편으로 “프로젝트 참여대학들”도 동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보고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uh et. al., 2010).

먼저 사례연구 참여를 통해 무엇보다 자신들의 대학이 학부교육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It affirmed that they were……”doing something great), 아울러 대부분의 DEEP 참여 대학들은 해당 대학의 사례연구 보고서와 최종 결과물인 SSiC를 외부 평가인증, 내부 개혁을 위한 토론회, 교직원 연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 ✓ SSiC와 사례연구 보고서를 통해 다른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효과적 실천전략을 벤치마킹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체로 하여 학부교육 개선을 위한 내부적 토론과 개혁 아이디어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활용함;
- ✓ 대학의 외부 평가인증 과정에서 DEEP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활용함;
- ✓ 사례연구 보고서를 교수 연찬회 등에서 토론을 촉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도출함;
- ✓ 신규 채용자들에게 해당 대학에서 추진해 온 교육철학과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 사례연구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부록 3] 미국의 NSSE 및 대교협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 개요

대교협의 “학부교육 실태 진단 조사도구”는 미국 Indiana 대학의 NSSE Institute에서 개발하여 현재까지 북미지역 1,400여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의 Benchmarks 설문 문항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한 조사도구이다.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대교협의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그 배경지식으로서 먼저 미국의 NSSE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가. 미국의 학부교육 실태조사 도구: NSSE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⁷⁾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는 대학생 학습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로 인디애나대학 고등교육연구소(Center for Postsecondary Research)가 주관하고 있다. NSSE는 200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2010년 572개의 미국대학과 23개의 캐나다 대학들이 참여(약 36만 명 이상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NSSE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경험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 효과적인 교육실천에 관한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자 및 대중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구안되었다.

NSSE의 설문구성은 학생의 교육경험을 묻는 12개의 대영역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항목등 총 10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2개의 대영역은 ①학문적, 지적 경험(Academic and Intellectual Experiences), ②정신적 활동(Mental Activity), ③읽기와 쓰기(Reading and Writing), ④ 과제(Problem Sets), ⑤시험(Examination), ⑥기타 대학생활 경험(Additional Collegiate Experience), ⑦교육적 경험의 증진(Enriching Educational Experience), ⑧상호관계의 질(Quality of Relationships), ⑨시간사용(Time Usage), ⑩대학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⑪교육적, 개인적 성장(Educational and Personal Growth), ⑫만족도(Satisfaction) 등이다. 응답자 특성을 묻는 질문에는 출생연도, 성, 외국인 학생 여부, 인종, 학년, 편입여부, 출신 고등학교 유형, 학생등록형태(시간제/

7) 유현숙 외(2012).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pp. 32-33)” 연구보고 RR 2012-17. 한국교육개발원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전일제 여부), 사교클럽 가입여부, 교내 운동팀 가입여부, 거주형태, 부모 교육수준, 주 전공 및 부전공 등이 포함된다.

NSSE의 중요한 특징은 전국적 기준(National Benchmarks)을 제공하여 대학이 이 기준에 비추어 자신들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 기준(Benchmarks)은 효과적인 교육적 실천(effective teaching practice)을 위한 일단의 기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학생들의 교육경험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42개의 문항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크게 ① 학문적 도전 수준(Level of Academic Challenge), ② 지원적인 대학환경(Supportive Campus Environment), ③ 교수와 학생 간 교류(Student Interactions with Faculty Members), ④ 능동적·협동적 학습(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⑤ 교육적 경험의 증진(Enriching Educational Experience)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나. 대교협의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

1) 개요: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참여대학 및 조사방식

<도입배경>

2010년 시작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사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즉 그 동안 연구 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학부교육에 대한 일선 대학들의 관심의 확대와 질 관리의 요청이다. 이와 함께 학부교육을 잘 하는 대학이 인정받는 대학 풍토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ACE 사업의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기여는 크다. 최근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국경을 넘는 대학 간 경쟁의 심화, 청년 실업의 증가와 맞물린 대학 교육의 책무성 제고 등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를 맞아 이제 학부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대학의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 “학부교육 실태조사”이다. 즉, 현재 대학에서 제공되는 학부교육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교육의 질 개선과 학부교육의 발전을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추진경과>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는 2011년부터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협의회(에이스 대학 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해 온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4년 종단연구, 연구책임자: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 20개 ACE 대학을 포함한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작으로 되었고, 2012년에는 40개 대학, 2013년에는 57개 대학으로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2014년 조사에는 89개 대학이 참여하여 전국 4년제 대학(총 201개) 중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대학들이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2014년 참여 대학 (총 89개 대학)

	ACE 참여		ACE 비참여	
수도권 대형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한양대(서울, ERICA)	5	경기대, 국민대, 동국대(서울), 명지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인천대, 홍익대(서울)	8
수도권 중소형	가톨릭대, 광운대, 서강대, 서울여대	4	강남대, 그리스도대, 대진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안양대, 한경대, 한성대, 한세대	10
지방 대형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7	경상대, 경성대, 공주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백석대, 부산대, 선문대, 울산대, 원광대, 청주대, 한남대, 호서대	14
지방 중소형	건양대, 금오공대, 대전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목원대, 목포대, 안동대, 우송대, 한림대, 한밭대	11	강릉원주대, 경동대, 가톨릭관동대, 광주대, 군산대, 남서울대, 대구한의대, 동신대, 배재대, 부산외대, 서원대, 세명대, 순천대, 신라대, 영산대, 우석대, 울산과기대, 위덕대, 인제대, 중부대, 창원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홍익대(세종)	27

<조사방식>

학부교육 실태조사는 웹기반 설문조사 방식을 택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며 경제적이다 (참여 대학에서는 일절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연구팀은 매년 학생들에 대한 안내문,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학부교육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참여대학 교무처 또는 교수학습 관련 부서에 제공하고, 참여대학은 재학생들에게 설문링크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별로 학생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참여 행사를 열거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참여대학에 대하여,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 각 전공계열 별로 3개 학과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각 계열별로 50-100명 수준의 표본이 확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년별 분석과 성장 분석(Growth model)이 가능하도록 1-4학년 전 학년에 걸친 균형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활용>

학부교육의 질을 진단하는 방법은 대학에 랭킹(ranking)을 부여하는 것부터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조사는 전국 수준에서 우리나라 학부교육의 질을 진단하고, 참여대학 수준에서 학부교육의 질과 관련된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Peer Benchmarking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본 조사에 참여한 대학들은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 요인에 대하여 대학 전체, 학문 단위별, 학년별로 해당 대학과 환경 및 여건이 유사한 동료 대학(peer university)과 자신들의 성과를 비교적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조사의 결과는 국가 보고서(national report)와 대학별 보고서(참여대학 모두에게 제공)의 형태로 제공되며, 대학별 보고서는 해당 대학의 학부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 별로 수집된 자료와 정보는 해당 대학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 도구

<2010-2013년 진단 도구>

학부교육 실태진단 조사 도구는 대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한 시간 투자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 교류(교수-학생 교류, 교우 관계),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는 “학생 참여(student engagement)”라는 개념이다.

‘학생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학부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학생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

음에도 최근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생 참여 경험이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하며, 학업 성과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연구나 실증 자료에 기반을 둔 분석이 미흡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 평가에서는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주로 투입 요인(학생당 교육비, 전임교원 확보율 등)이나 산출 요인(취업률,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학부교육 실태 조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학습 참여 및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또한 정부가 수행하는 ACE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다는 부수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학생 참여”는 크게 다음의 2가지 핵심 영역으로 대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과 ‘기타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이다. 두 번째는 대학이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교육적 성취(예컨대, 중도탈락율 감소, 만족도, 질 높은 학습과 졸업)를 위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느냐이다. 구체적으로 (1)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2) 교육 과정 및 학습 기회들을 조직하며, (3) 효과적 교육 및 대학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중 특히 두 번째 영역에 대해 주된 정책적 관심이 주어지는 데, 이는 이 두 번째 영역이 바로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지와 체계적인 교육적 개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적 “부가 가치(Value-Added Effect)”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Kuh, et. al., 2010).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수행된 “학부교육 실태 진단”의 진단 도구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개 영역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1~13 학부교육 실태조사 문항

영역	문항 내용
학업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준비에 투자한 시간 - 교수의 기준이나 기대보다 많은 노력 여부 - 수업에 활용된 교재, 책 혹은 책 한권 분량의 읽기 과제 수 - 5~14쪽 가량 작성한 보고서 수 - 5쪽 미만 작성한 보고서 수
지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 분석 강조 - 수업 중 종합 강조 - 수업 중 판단 강조 - 수업 중 적용 강조 - 대학이 학업을 강조하는 정도

능동적·협동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 발표 활동 - 수업 중 친구와 프로젝트 수행 - 수업 이후에 친구와 과제 준비 및 수행 - 과제 수행에 전자매체 사용
교우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친밀감, 지지, 소속감) - 교우를 가르치거나 지도 - 수업 내용 및 관련된 생각을 외부사람들과 토의 -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개인 가치가 다른 학생과 대화
교수와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와 학점이나 과제에 대한 의논 - 교수와 진로계획 의논 - 교수와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시간 외 토의 - 학업 성과에 대한 교수의 신속한 피드백 - 교수와 수업이외의 학내 활동 함께 수행 - 교수들과 인간관계의 질 (면담, 도움, 공감)
지원적 대학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성공을 돕는 대학의 지원 - 다양한 교내 사회적 활동(동아리, 문화·스포츠행사 등)지원 - 행정 직원 및 부서/기관과의 관계 (도움, 배려, 유연)

<2014년 진단 도구>

“학부교육 실태조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NSSE의 경우 2013년 진단 도구를 상당부분 수정하였다. NSSE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과 문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학생들의 학업도전 부분에 문항의 추가가 이루어졌고, 학생참여를 구성하는 전체 영역 구성도 총 4개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2014년에 수행된 “학부교육 실태조사”에서도 문항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학생참여를 구성하는 영역(요인) 구성을 변경하였다. 모든 요인(영역)과 이에 포함된 문항들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내적 문항 신뢰도는 .767에서 .90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측정 문항과 관련해서는 2010-2013년 수행된 “학부교육 실태조사” 문항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해당 문항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

학업 도전(Academic Challenge)

학업도전 요인은 대학 학부 교육에서 학생들의 지적 도전과 창의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이 다양한 심화된 학습(deep learning)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 NSSE의 학업도전 요인에서는 심화

학습과 관련된 하위 요인과 문항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학업 도전은 고차원 학습 경험(Higher-Order Learning), 반성적, 통합적 학습경험(Reflective & Integrative Learning), 학습전략(Learning Strategies) 및 양적추론(Quantitative Reasoning)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는 과정에서 양적 추론(ACQ)에 해당하는 항목은 추상적인 질문으로 한국 대학생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 요인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학부교육 실태조사” 측정 문항에서는 제외하였다.

동료와 학습(Learning with Peers)

동료와 학습 요인은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동료 및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려 어려운 자료를 배우거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를 개발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동료와 학습 요인은 학습참여와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질에 관한 것으로, 하위 요인으로는 협력적 학습(Collaborative Learning)과 다양한 사람과의 토의(Discussions with Diverse Others)로 구성되었다.

교수와의 경험(Experiences with Faculty)

교수와의 경험 요인은 대학생들이 학습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업 등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롤 모델, 멘토, 평생 학습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며, 효과적인 교수 활동은 교수들의 수업 준비와 진행 등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보여준다. 하위 요인으로는 학생-교수 상호작용(Student-Faculty Interaction)과 효과적 교수 활동(Effective Teaching Practices)이 포함되었다.

대학 환경(Campus Environment)

대학 환경 요인은 대학이 학생, 교수, 직원들이 서로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도록 조성하고 지원할 경우 대학생들의 학습 참여가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으로 상호작용의 질(Quality of Interactions), 지원적 환경(Supportive Environment)으로 구성되었다.

※ 2014 학부교육 실태조사 문항

요인	문 항 수	설문내용 및 측정방법
고차원 학습경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이론과 방법들을 실질적인 문제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봄 - 아이디어, 경험 혹은 논리적 사고과정을 세분화 하여 심층 분석해 봄 - 특정한 관점, 판단, 정보가 타당한지 평가해 봄 -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이해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봄
반성적 통합적 학습경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수업 등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적용해 봄 -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사회의 문제나 이슈와 연결지어 봄 - 수업에서 토론과 과제를 할 때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 봄 - 특정한 주제나 이슈에 대한 내 관점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 봄 -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봄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봄
학습전략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자료나 읽기 과제로부터 핵심 정보 확인하기 - 수업 후에 필기한 노트 등을 가지고 학습함 - 수업 자료나 수업에서 배운 것을 요약, 정리해 봄 - 학습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봄(학습 플래너 활용 등)
능동적 협동적 학습태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에 질문하거나 토의에 참여함 - 수업에서 쓰인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봄 - 친구들에게 수업 자료에 대해 설명해 본 적이 있음 -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함 - 친구들과 수업자료에 대해 함께 토의하거나 공부를 하여 시험을 준비함
다양한 그룹과 토론경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경제적 수준을 지닌 사람 -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진 사람
교수학생 상호작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님과 나의 진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봄 - 교수님과 수업 외 활동을 함께 함 (위원회, 동아리 모임, 등) - 교수님과 수업 외 시간에 수업에서 다룬 주제, 아이디어, 개념에 대해 토의하였음 - 교수님과 나의 학업 성과에 대해 논의하였음
효과적인 교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음 -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구성하여 가르쳤음 -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와 그림을 사용하였음 - 보고서 초안이나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주었음 - 시험결과나 제출한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자세한 피드백을 주었음
교우와 관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내 다른 학생 - 대학 친구 (동기 등) - 대학 후배 또는 선배
교직원과 관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튜터 또는 도우미(교직원, 대학원생) - 행정직원(진로, 취업, 학생활동, 기숙사 등 담당) - 행정직원(등록, 학자금 지원 등 담당) - 수업 조교 및 학과 조교 <p>교수</p>

요인	문 항 수	설문내용 및 측정방법
지원적 대학환경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원 서비스 (튜터링 서비스, 글쓰기 센터 등)의 제공 - 다양한 배경(사회적 배경, 인종, 종교 등)을 가진 학생들과의 교류 - 사회적 친교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예: 홈커밍, 졸업생과의 만남) - 학업 외 문제(일, 가족, 연애 등)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 - 캠퍼스 활동과 학내 행사(공연예술, 운동경기 등) 참여를 권장함 -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교내외 행사에 참여 -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 - 학생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레크리에이션, 건강, 상담 등) - 학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함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 졸업 후 진로 안내 (진로, 직업상담, 취업 및 창업 안내 등)

[부록 4] K-DEEP 프로젝트 참여연구진 프로필

변기용 교수 (연구책임자)

- 현 고려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및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현 한국교육행정학회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교육정치학회 홍보위원장, 한국교육학회 학회지 편집위원, 미국 고등교육학회(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회원
- 경북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및 기획담당관실 사무관, 교육부 대학원 개선팀장, 기획담당관, 장관 정책보좌관 역임
- OECD IMHE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프로그램에서 Project Manager로 3년(2002~2005)간 근무하며 “Contribution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Regional Development”란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운영함
-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학의 특성과 역량에 따른 국제화 대응 양상과 전략 분석”, “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경험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 등 많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책임을 맡아 왔으며, 지난 5년간 고등교육행정 및 학생 경험과 관련 30여 편의 논문과 저서를 국내외 우수 저널과 책자로 발표한 바 있음

김병찬 교수 (공동연구원)

- 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원장 및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학과장
- 현 한국교육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현 한국교육정치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전 한국교육정치학회 정책연구위원장, 전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위원장, 전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위원장 역임
- 교육부 교원양성기관평가 평가위원, 교육부 교장연수기관평가 평가위원,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경기도교육청 자문위원
-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의 교사 헌신 특성 연구', '교원양성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수석교사제도 연구', 그리고 교육부의 '자사고 설립방안 연구', '기숙형고교 운영 방안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함. 학교, 교원, 교육정책, 교육제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적 연구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정책이나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핀란드 대학에 대한 교육활동 재정지원 사업' 사례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음.

배상훈 교수 (공동연구원)

- 현 성균관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 및 대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 현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위원장, 한국방과후학교학회 학술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교양기초교육원 실무위원장,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for Extended Education, editor.
- 교육부 대외협력팀장, 방과후학교기획팀장, 누리사업팀장,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역임; 교육부 대학발전기획단 위원,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협의회 자문위원 등 역임

변수연 교수 (공동연구원)

- 현 한국교육학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방법학회, 한국비교교육학회 회원
-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교의 캠퍼스 문화가 대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학습에 끼치는 영향력, 철학 교과에서 영어 강의의 효과 비교 등을 연구하였고, 레지텐셜 칼리지 제도와 이러닝 등 최근 국내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의 공동연구원으로 “대학의 특성과 역량에 따른 국제화 대응 양상과 전략 분석”, “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경험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등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함.
-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에서 신입생 선발과 대학 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입생 상담 및 학습 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음.

이미라 박사 (공동연구원)

-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 교육관련 데이터 및 통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가 인재통계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인재양성통계 실태 분석”, “인재통계 표준화 방안 연구”, “국가 교육통계체계 발전방안 연구”, “교육기본통계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한 조사항목 재구조화 방안”, “학교이력관리를 위한 교육통계 정보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국가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통계 분석 연구”, “고등평생학습 관련 데이터 생산과 지표화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음.

이석열 교수 (공동연구원)

- 현 남서울대 교양학부 교수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장
- 현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위원(전 사무국장 역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재정경제학회 회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남서울대 교직부장 역임
- 고등교육과 관련한 각종 평가(누리사업, 수도권특성화 사업, 학부중심선도대학 선정 사업, 교원양성기관 평가사업 등)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대교협 대학기관인증평가는 시범평가부터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3차례 인증기관평가를 수행하였고, 지금은 사후 모니터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고등교육과 관련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DEA를 이용한 사립대학의 경영효율성 분석”,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의 효율성 분석”,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정책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학장의 직무분석 및 분산적 리더십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대학원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전재은 박사 (전임연구원)

- 현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연구교수
-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Postdoctoral Associate(2009-2011), 미국 교육부 지원 Study Abroad for Global Engagement(2006-2010) 연구과제 수행
- 미국 고등교육학회(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비교국제교육학회(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회원 및 심사위원 참여
- 호주 정부 교육관련 프로젝트, 일본 문부과학성 지원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 미국 교육학회(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국제연구(International Studies) SIG 우수평가패널(Highest-rated symposium), 비교국제교육학회(CIES) 고등교육 SIG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Honorable Mention for a Dissertation award) 수상
-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등 SSCI 포함 해외 주요 학술지 논문심사 참여
-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에서 고등교육 관련 다수의 과제 수행.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 사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정책연구 수행

RR 2014-01-4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IV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례 연구 보고서

발행	2015년 2월
발행인	변기용
발행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주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전화 : (02) 3290-2985 팩스 : (02) 3290-5325 http://hepri.korea.ac.kr
인쇄처	제일문화사 (02) 921-7221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